

# WITH KRTA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방사협보 2023 vol.396



9 772765 341001  
ISSN 2765-3412



대한방사선사협회



## Contents

### 건강한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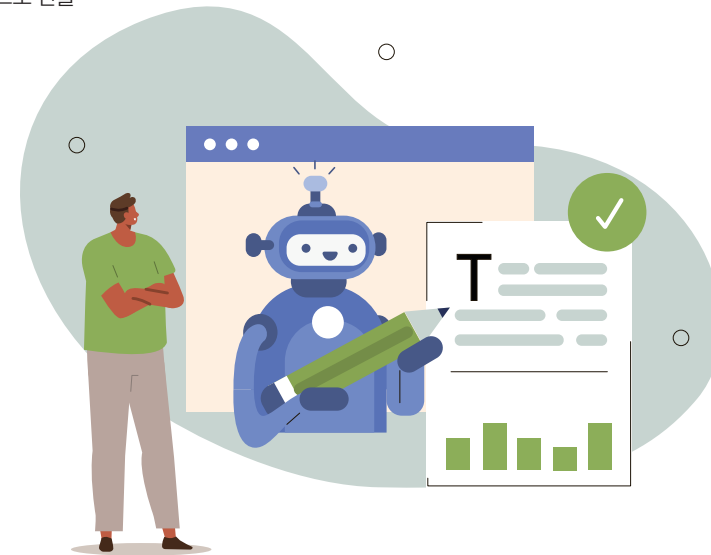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 02 Intro**  
제58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
- 04 중앙회 소식**  
발로 뛰는 협회  
KRTA News
- 18 사·도회 소식**
- 31 전문학회 소식**
- 40 Issue**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 김창규 회장, 의기교충 대표회장으로 선출

### 건강한 정책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 42 Sketch**  
2023년 제24차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AACRT) 참관 후기
- 48 News Review**  
CT, MRI 공동활용영상 폐지 우리에게 다가올 의료환경의 변화는?
- 52 Insight**  
의료 AI 시대에 방사선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 56 Essay**  
바다의 리듬: 삶의 파도와 함께하는 지혜
- 58 Together**  
방사선학과 학생의 방사선사 임상 실습 후기
- 60 Webtoon**  
숨 참으세요

### We are RT's

- 62 공지사항**  
방사선사 면허신고 안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 65 퀴즈 이벤트**  
독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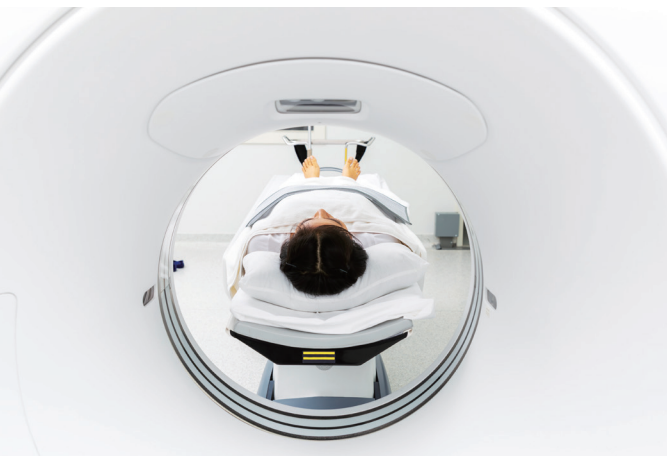


**표지 이야기**  
제58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  
2023년 10월 27~28일, 제58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을 성료했다.

# WITH KRTA

방사협보 2023 vol.396

- 발행일** 2023년 11월 27일 (통권 제396호)
- 발행인** 한정환(대한방사선사협회장)
- 편집위원장** 조원홍(삼성서울병원)
- 미디어혁신이사** 임기선(충북대학교병원)
- 편집위원** 조선일(경희대학교 치과병원)
- 양민재(서울대학교병원)
- 심지나(세브란스병원)
- 이호일(세브란스병원)
- 서영석(계명대학교동산병원)
- 백인성(이대목동병원)
- 성열훈(청주대학교)
- 김규형(명지병원)
- 김기정(건국대학교병원)
- 최관우(원광대학교)
- 손진현(신구대학교)
- 강보미(대한방사선사협회)
-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 전화** 02-576-6524
- 팩스** 02-576-6526
- 이메일** krt@krt.or.kr
- 홈페이지** www.krt.or.kr
- 광고 문의** 협회 02-576-6524
- 편집·디자인** 어울
- 인쇄** 송현문화



**WITH KRTA**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WITH KRTA**는 협회 홈페이지(www.krt.or.kr)와 웹진(webzine.krt.or.kr)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WITH KRTA**에 게시된 글과 사진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웹진 바로가기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홍보동영상



# 제58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



‘제58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이  
2023년 10월 27일(금)~ 10월 29일(일),  
The-K 호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도전에서 도약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방사선사**

##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04 **중앙회 소식**  
발로 뛰는 협회  
KRTA News

18 **시·도회 소식**  
인천광역시회  
대구광역시회  
부산광역시회  
충청북도회  
전라남도회

31 **전문학회 소식**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대한방사선치료학회  
대한핵의학기술학회

40 **Issue**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 김창규 회장,  
의기교총 대표회장으로 선출



# 발로 뛰는 협회

- 7. 1 • 연수원 인천분원 심장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
- 7. 2 • 연수원 근골격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  
• 가야대학교 지방연수원 유방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
- 7. 3 • 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  
• 총무부 업무보고
- 7. 4 • 협력사 간담회
- 7. 5 • 치요다테크놀 방문
- 7. 6 •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 회의
- 7. 7 • 제4차 상임이사회의  
• 제6차 인사위원회의
- 7. 8 • 제1차 보수교육관리위원회의
- 7. 9 • 연수원 유방영상 전문화교육 종강
- 7.10 • 신입 윤리위원장, 윤리위원 간담회  
• 학술대회 홈페이지 제작사 미팅
- 7.12 • 제1차 국제교류위원회의  
•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긴급 기자회견
- 7.13 • 제1차 중앙관리위원회의
- 7.14 • 제1차 방사협보편집위원회
- 7.15 • 법제부 회의

- 7.17 • 제2차 운영위원회  
• 제2차 방사선교육인증평가원 운영위원회의
- 7.19 • 정책연구원장 업무보고
- 7.20 • 제2차 추계학술대회 TFT 회의  
• 제3차 운영위원회  
• 간호조무사협회 제50주년 창립기념식 참석
- 7.21 • 국시원 정책과제 공청회
- 7.22 • 2023년 전국 시·도회장 협의회 워크숍  
• 제1차 권익보호위원회의
- 7.23 • 연수원 근골격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
- 7.26 •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미팅
- 7.27 • 제7차 인사위원회의
- 7.28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 행정법인 인권 행사 협약식
- 7.29 • 연수원 인천분원 심장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
- 7.31 • 제1회 방사선사의 날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 법무법인 정의 협약식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7차 회의
- 8. 1 • 초음파학회 임원 간담회
- 8. 2 • 2023년 2분기 면허신고 결과보고



- 8. 4 • 더불어민주당 전해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  
• 회계법인 정동 업무협약식  
• 법무법인 일현 업무 협약식
- 8. 5 • 마산대학교 지방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
- 8. 6 • 대구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  
•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간담회
- 8. 7 • 방사협보 제395호 발간
- 8. 8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예결산소위원회 회의  
• 제58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 8.9~8.14 • 제24차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AACRT) 및 제7차 동남아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참가
- 8.16 • 제20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1회차-수도권) 사전준비  
• 인천광역시 연수원 장비 임대 계약
- 8.17 • 국회 보좌관 간담회
- 8.18~8.19 • 2023년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워크숍
- 8.19 • 연수원 심장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  
• 연수원 방사선의학물리 1차 교육 개강  
• 제20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1회차-수도권) 사전 설치  
• 법제부 & 교육평가원 업무관련 회의  
• 부산가톨릭대학교 지방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
- 8.19~8.20 • 법제부 워크숍
- 8.20 • 제20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1회차-수도권)

- 8.21 • 복지·권익부 업무 회의  
• 재무부 업무 회의
- 8.23 • 대한수의사회,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간담회
- 8.25 • 추계학술대회 TFT 3차 회의
- 8.26 • 제1차 기록보존위원회 회의  
• 세종시 회원 소속 시·도회 결정을 위한 간담회
- 8.28 • 전문방사선사시험원장, 방사협보 편집위원장 업무회의  
• 제58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 실무자 회의
- 8.29 • 간호협회 간담회
- 8.31 • 제4차 운영위원회의  
• 전임회장 간담회
- 9. 1 • 제5차 상임이사회의  
• 제8차 인사위원회의
- 9. 2 • 교육평가원 평가위원 양성교육  
• 방사선의학물리 1차 교육 종강
- 9. 4 • 국시원 임시이사회의
- 9. 5 •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제3차 운영위원회
- 9. 6 • 법제부 & 법무법인 정의 업무 관련 회의  
• 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
- 9. 7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보좌관 간담회





- 9.8~9.10 • 제23차 마카오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 9. 9 • 보건 의료 인력의 합리적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토론회
- 9.10 • 연수원 심장초음파 전문화교육 중강
- 9.11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 9.12 • 제1차 대의원회 임원회의
- 9.12 • 안전관리부 질병관리청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신청 준비
- 9.13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복권서트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회의
  - 제2차 법제위원회 회의
  - 제2차 방사협보 편집위원회 회의
- 9.14 • 안전관리부 정도관리 기자재 계약
  - 간호법 재추진 의견수렴을 위한 의료기사단체 간담회 (주최: 보건복지위 고영민 민주당 간사)
- 9.15 • 법제부 업무보고&변호사 미팅
- 9.16 • 제228차 정기이사회회의
  - 방사선의학물리 2차 교육(실습) 개강
- 9.18 • 상급 종합병원 실(팀)장 간담회
- 9.19 • 제34회 안경사의 날 기념식

- 9.20 • 법제부&복지권익부 업무관련 미팅
- 9.21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4개 단체장 회의
  - 추계학술대회 TFT 4차 회의
- 9.22 • 제2차 중앙관리위원회의
- 9.23 • 제2차 기록보존위원회 회의
- 9.24 • 방사선의학물리 2차 교육(실습) 중강
- 9.25 • 제1차 정보통계원 정보관리위원회의
  - 경상북도회 전임회장 간담회
- 9.26 • 학술대회 관련부서 2차 회의
  - 학술대회 국제세션 운영 실무자회의
- 9.27 • 질병관리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신청서 제출
- 9.28~10.1 • 제39차 일본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및 제30차 동아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참가
- 10. 5 • MK노무법인 노무사 미팅
  - 학술대회 관련부서 3차 회의
- 10. 6 • 전문방사선사시험원장 업무회의
  - 교육부&법제부 업무관련 미팅
  -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온라인시스템 관련 미팅

- 10.11 • 총무부 업무회의
- 10.12 • 추계학술대회 준비 4차 회의
- 10.13 • 제6차 상임이사회회의
- 10.14 • 연수원 혈관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
  - 제3차 법제위원회 회의
  - 제13차 충청방사선사 연합학술대회
- 10.15 • 신구대학교 지방연수원 심장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
  - 부산가톨릭대학교 지방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중강
- 10.16 • 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
  -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회의
- 10.17 •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업무 협약
  - 경북도회 조사의 건 법제부 & 김종범 변호사 미팅
- 10.18 • 대한초음파의학회 간담회
  - 제58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장소 답사
  - 홈페이지 개편 대책회의

- 10.19 • 경상북도회 회원 면담
- 10.20 • 방사선 방어시설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
- 10.21 • 총무부 업무회의 및 리허설
- 10.23 • 대한의사협회 & 4개 의료기사단체 간담회
- 10.24 • 제2차 국제교류위원회의
- 10.25 • 법제부 & 정보통계원 협회 홈페이지 소송의 건 미팅
- 10.26 • 치요다테크놀 임원진 간담회
- 10.27 • 2023년 추계 전문연수회
  - 법제위원회 워크숍
- 10.27~10.29 • 제58차 대한방사선사학술대회 및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
- 10.30 • 국시원 예결산 소위원회 회의
- 10.31 • 방사선사 2023년 3분기 면허신고 보건복지부 결과보고





# NEWS

## KRTA '방사선사의 날' 성황리 개최

### 대한방사선사협회 창립기념일을 '방사선사의 날'로 지정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는 창립 58주년을 맞아 7월 31일을 '방사선사의 날'로 정하고 협회 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첫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58년간 방사선사의 권익과 교류, 상호 지원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사선 기술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보수 교육기관으로서 방사선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교육에 앞장서 왔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오유환 회장, 대한초음파의학회 조정연 회장,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 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주희중 회장,

대한보건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박지연 회장 등 정부 및 보건 의료 직역 단체가 모여 '방사선사의 날'을 함께 축하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국민의힘 강기운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국민의힘 백종현 국회의원, 대한영상의학회 이정민 회장, ISRRT Napapong 회장은 '방사선사의 날' 행사 개최를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와 축전을 전했다. 또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시·도회, 전문학회 회장이 참석하여 '방사선사의 날'이 방사선사 모두를 위한 축제의 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축사 이후에 제15대, 제16대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김건중 전임회장의 기념사와 이창엽 회원의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걸어온 길' 강연은 지난 58년의 역사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였다.



방사선사의 날' 개최사를 하는 한정환 회장    방사선사 윤리강령을 주창하는 이배원 부회장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의 축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축사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 의료 직역 단체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원이 함께 '방사선사의 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정환 회장은 의료계 4차 산업혁명의 환경에서 방사선사의 양성 과 역할에 대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비전 'Future of KRTA INNOVATION25'을 발표하며 "의료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방사선사의 수고와 헌신을 기념하고, 미래 가치를 창조하고자 창립기념일을 방사선사의 날로 정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의료기사단

체총연합회 등 유관단체와의 지속적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 교류의 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립 59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방사선사의 날'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료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방사선사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중앙회 소식

# NEWS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7차 정기회의 개최

### 의료기사 등의 협력과 지역 활동 연대 방법 등 논의

지난 7월 31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황윤숙, 이하 '의기총') 제7차 정기회의가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 현장실습 법제화 관련 보건복지부 합의문 검토 등 관련 유관단체와의 협조 및 의료기사와 관련 발의 및 준비되는 여러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최근 지역 활동들이 활발해진 지역 의료기사단체 연합회 및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 방안에 대한 논의 및 8월에 개최되는 워크숍에 대한 준비상황도 점검하였다. 이어 각 단체들의 활동 및 상호 협조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보건의료계 동향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황윤숙 총회장은 "향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각 단체들 간의 공조 및 지역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할 때이므로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회관에서 진행 중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7차 회의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전해숙 의원과 오찬 모임

### 의료기사들의 전문 활동을 위한 폭넓은 열린 대화의 장 펼쳐

지난 9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정관 6층 쿠치나후에서 전해숙(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의원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황윤숙, 이하 '의기총')와 오찬 회동이 있었다. 당일 회동에서는 전해숙 의원의 의정 철학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한 의정 활동과 그 성과의 의미 등을 공유하고, 의기총에서는 의기총의 현안 문제들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해 공유하였다. 이어 각 단체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참석자 모두는 국민건강과 고령사회 노인들을 위한 의료기사들의 적극적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전문성 발휘의 활동을 위해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이날 의기총 단체 소속 8개 단체가 모두 참석하여 그동안 보여 주었던 의기총의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의기총 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전해숙 국회의원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

### 의료기사 관련 법과 각 단체 현안 문제 논의

지난 9월 4일 오후 4시 국회 본관 6층 보건복지위원장에서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보건복지위원장)위원장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황윤숙, 이하 '의기총') 소속 8개 단체 대표들이 「지

역보건법」의 보건소장의 자격에 대해 의료기사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에서의 법 개정 등에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각 단체들은 각 단체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었다.



## 방사선사 병원실습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사선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의 면허 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하여 병원 현장실습 이수율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하여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의료기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은 필수적인 항목이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해 2월 서영석 의원이 관련 조항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후 지난해 9월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후 같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대한방사선사협회는 환영의 의사를 표하였고, 지난 10월 13일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방사선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방사선학과 졸업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병원 현장실습까지 이수한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

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면허)에 방사선사 면허의 취득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법안의 통과로 병원 현장실습을 위한 법적 토대는 마련하였으나 안정적인 시행규칙의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회원들을 비롯한 방사선학과 재학생 및 교수 등 다양한 직종의 목소리를 잘 들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실습 체계 마련으로 소중한 의료영상전문가를 양성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회 소식

# NEWS

## (사)대한방사선사협회와 (재)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업무 협약 체결

(사)대한방사선사협회와 (재)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 지난 10월 17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한정환 협회장, 이배원 부회장, 서영배 부회장, 이진욱 교육이사가 참여하였고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에서는 허영 부이사장, 한갑운 팀장, 김현수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대한방사선사협회와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은 업무 협약을 통해 방사선사의 역량 강화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사선 분야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실습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방사선 분야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본 협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체결하였다.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은 국산 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해 방사선 발생장치 및 스마트헬스, 의료 IT 인공지능 관련 주제를 교육한다. 대한방사선사협회와는 업무 협약 체결 이후 방사선(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제공하여 방사선 분야 의료기기 전문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왼쪽부터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이진욱 교육이사, 서영배 부회장, 이배원 부회장, 한정환 협회장, (재)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허영 부이사장, 한갑운 팀장, 김현수 연구원

## ISRRT & AACRT 대표자회의 및 제24차 AACRT 학회: 8월 10일~13일



### 세계방사선사(ISRRT) 대표자회의

- Dr.Napapong Pongnapang(ISRRT 회장), Ms.Tan chek wee(ISRRT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부회장), Mr.Naoki Kodama(ISRRT Regional Director) 등 16개국 대표자와 각 협회 임원 참석
- 최근 ISRRT의 다양한 activity에 대해서 홈페이지 업데이트 보고
- 2022~2026 개정된 조직도에 대해서 소개

### 2024 ISRRT in Hong Kong 홍보

- 제58회 대한방사선사학술대회 및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2023년 10월 27~28일) 개최 공지(한국대표자)

- 대한방사선사협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2025년에 개최될 예정임을 공지(한국대표자)

###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AACRT) 대표자회의

- 제25차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AACRT) 개최 지원국의 프리젠테이션 및 결정 회의(지원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 태국이 제25차 AACRT 2025년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
- 매년 KRTA 방사선사 1명에게 수여할 'ROENTGEN AWARD' 수여식에 대해서 ISRRT회장(Dr.Napapong)으로부터 공식적으로 ISRRT 명칭사용에 대한 최종 허락을 득함 (단, 대한 방사선사협회로고와 ISRRT로고가 상장안에 같이 포함되는 조건)

- 16개국 150여 편 해외 일반회원의 논문발표가 진행
- 한국 논문: 구연(3편), 포스터(3편)
- Best oral presentation 수상: 신희준(Radisen 의료기기회사)

## 제23차 MRTA 국제학술대회 대표자회의 및 학회: 9월 8일~11일

- 마카오 방사선사협회 회장인 Cora 회장과 대한방사선사협회와 동남아시아 방사선사협회가 진행하는 CPD program 및 학술교류 지원에 대한 토의
- ISRRT Napapong 회장과 주요 현안 및 KRTA 추계학술대회 의견 공유
- TSRT Sala 회장과 추계학술대회 의견 교환 및 태국 회원 참석 인원 설명
- JART Kodama 부회장과 한·일방사선사협회간 현안 의견 및 한·일 학술교류 발전 방향 교환

-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 대표자와 인사 및 추계학술대회 의견 공유
- 충북도회 회원 논문 발표(2명), 김현준 회원 International Session 좌장으로 학술 발표회 참석
- \* 논문 발표 수상(발표자: 김현준) 포스터 수상(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제29차 JCRT 및 제30차 EACRT: 9월 28일~30일

- 다음 EACRT meeting 일정: 2024년 3월 대만, 타이페이 예정 (세부 일정 추후 공유)
- 다음 EACRT 개최지: 2025년 10월 한국 예정 (세부 일정 추후 공유)
- Asia Supporting Fund 사용 방향 논의
- 한국: "동의, 언제,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해야 함, 또한 기금에 대한 모금을 언제 다시 시작할지 협의 필요"
- 대만: "내년 EACRT meeting에서 결정하는건 어떨지 제안"
- 3국: "모두 동의, 내년 EACRT meeting전 까지 사용처 제안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 대만: "EACRT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를 더 지원받기를 희망함 (내년 EACRT meeting in Taiwan)"
- "EACRT학회 개최시 Travel 관련 Fee를 지원하는건 어떨지"
- 3국: "모두 동의, 세부 사용처에 대한 결정은 내년 대만 회의 때 결정하기로"

- ISRRT 홍콩: 2024년 6월 개최예정, 각국 참가 여부 및 지원여부 파악 필요





중앙회 소식

# NEWS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전해숙 의원의 북콘서트 참가

지난 9월 13일(수) 세종대학교 대양시 센터에서 전해숙(더불어민주당, 광진)의원의 북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이날은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당시의 과정과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보건의료단체의 대표들은 단상에서 파란색 장미를 한 송이씩 선물받고 코로나 과정에 각 전문 직종이 자신들의 자리를 곳곳이 지키면서 국민 건강을 수호한 고마움에 대한 주민들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받았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황윤숙, 이하 '의기총')의 8개 단체는 코로나 과정에서 묵묵히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했고, 코로나의 일상

회복 과정에서 일조를 하였다.

이후 제9차 정기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 내용은 워크숍에 대한 보고, 의료기사의 날 준비 상황 점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중 현장실습에 대한 일부 개정의 진행 상황 보고, 타 직종 법률 개정 시 의료기사 업무 수호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의기총은 "의료기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관계와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향후에도 공동의 문제는 함께 대처하고 각 단체의 현안 문제들도 협조하면서 해법을 찾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10차 정기 회의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황윤숙, 이하 '의기총')는 지난 10월 16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회관에서 제10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논의는 11월 15일 개최되는 의료기사의 날 준비사항 점검과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 면허 시험 응시 관련 자격에 관한 대학 졸업 시 현장실습 이수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의 후속 절차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 제58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

‘도전에서 도약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방사선사’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가 '제58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을 Covid-19 이후 대면 종합학술대회로서 국내외의 외빈을 모시고 뜨거운 회원들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도전에서 도약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방사선사」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0월 28일(토)에 The-K 호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재학생을 포함하여 총 1,800여 명의 회원이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내부 초청 인사로는 전임협회장과 각 시도회장, 전문학회장,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영상학과 실장이 자리하였고, 외부 인사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의료기사협회에서 참석하였다. 또한 중국, 일본, 태국,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영국, 말레이시아, 홍콩, 베트남 등 각 국에서 영상 및 서면으로 축하하며 행사를 빛내주었다.

이날 대회식에서 ISRRT와 공동수여하는 린트겐 어워드상은 객석영 전임 회장에게 수여됐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으로 윤영우(춘해보건대학교), 김철진(청주현대병원), 서경두(부산대학교병원), 정홍량

(한서대학교) 회원이 수상하였고,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으로 권인혁(울산대학교병원), 유진오(원광대학교병원), 조문경(효성병원), 지은(정재면내과), 최용복(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회원이 수상하였다. 또한 조영기 전임회장에게 공로의 뜻을 기리며 송공패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학술대회 내용으로는 회원 연구 논문이 포스터를 포함하여 86편, 국제 논문이 21편, 재학생 논문이 64편으로 총 171편이 발표되었으며, 초청특강 및 심포지엄, 전시부스 개관 등으로 회원 간의 상호지식 함양의 장이 펼쳐졌다. 심사를 통한 수상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학술대상**  
▶ 이영진(가천대학교)  
**최우수상**  
▶ 한나래(분당서울대학교병원) 「디노이징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초저선량 CCTA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우수상

- ▶ 김연주(서울아산병원) 「디지털 방사선 검사에서 Anode Heel Effect가 미치는 영향」
- ▶ 김지혜(서울대학교병원) 「조영 증강 간 CT 검사 시, 가상의 단일 에너지 영상과 인공지능 기반의 CE-Boost 영상의 화질 비교 평가에 관한 연구」

장려상

- ▶ 이경준(서울대학교병원) 「중재적 시술 시 발의 산란선량 측정 및 자체 고안한 차폐기구의 유용성 평가」
- ▶ 김찬양(삼성서울병원) 「좌측 초기 유방암 동시통합추가조사 방사선치료시 Hybrid-VMAT(Hybrid-Volumetric Modulated Arc Therapy) 치료계획 유용성 평가」
- ▶ 최용우(세브란스병원) 「관상동맥 석회화 정량검사 시 유효두께에 따른 영상잡음 평가」

포스터 최우수상

- ▶ 이영진(가천대학교)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에서의 patch log likelihood를 사용한 dictionary learning 기반 노이즈 제거 효율 평가」

포스터 우수상

- ▶ 이영진(가천대학교) 「자기공명영상에서의 ROF 모델 기반 total

variation 알고리즘의 반복수 파라미터 최적화」

- ▶ 김정훈(서울대학교병원) 「자연유도수면을 이용한 신생아 두경부 자기공명 촬영에서 저소음촬영기법(Silent & ART)을 이용한 검사 성공률 사례에 관한 연구」

우수 구연상

- ▶ 대한방사선과학회 이승완(건양대학교) 「Swin transformer block을 사용한 CycleGAN기반 전산화단층영상 합성 기술 개발」
- ▶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최윤원(연세암병원) 「다발성 전이암 환자의 방사선치료 시 전선량 영역 감소를 위한 VMAT 기법의 유용성 평가」
- ▶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김명래(서울대학교병원) 「Sonovue를 이용한 고주파 열치료 전극 내부 순환물질에 따른 에코변화」
- ▶ 대한핵의학기술학회 김상형(양산부산대학교병원) 「빠 스캔에서 최적화된 방사성의약품 투여량 설정」
- ▶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박호성(아주대학교병원) 「복부 MRI 검사 시 호흡의 방식에 따른 T2W PROPELLER/BLADE 기법의 화질 평가: 무참조 영상 품질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 ▶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김명성(국립암센터)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술을 활용한 영상 합성 모델 연구」
- ▶ 대한영상치의학기술학회 안현준(서울보라매치과병원) 「ConeBeam



CT로 임플란트 검사 시 MAR 기능 유무와 선량조건에 따른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 ▶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이경준(서울대학교병원) 「중재적 시술 시 발의 산란선량 측정 및 자체 고안한 차폐기구의 유용성 평가」
- ▶ 대한CT영상기술학회 심유리(서울대학교병원) 「거동 불편한 환자의 전신 CT 검사 시 DLIR 기법의 유용성 평가」
- ▶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이창현(강동경희대학교병원) 「흉부 후-전 방향 검사 시 임신부를 위한 자체제작 차폐막의 유용성 평가」
- ▶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 권선아(삼성서울병원) 「유방촬영 영상의 인공지능 기반 진단 보조 프로그램(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Computer Aided Diagnosis)의 위용률 평가」
- ▶ 대한방사선진진학회 양윤영(국군수도병원) 「한국 군인의 경력에 따른 군인의 비만도와 복부비만에 관한 연구」
- ▶ 국제세션 LO Man Kuok(Macao(MRTA)) 「LOW INJECTION RATE IN LOWER EXTREMITIES CT ANGIOGRAPHY」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간호법과 관련해 회원과 공청회를 열어 많은 관심과 질문들을 받았다. 업무 영역에서 우리 방사선들의 직역을 침범하는 것에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충분한 논의 없이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형태로 간호법이 다시 추진되면 단체 행동 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제58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는 '제10회 아시아 방사선 치료 심포지엄'을 함께하며 ISRRT 아시아/오세아니아 Tan Chek Wee 부회장, 태국 Sala Ubolchai 회장, 일본 Kawamorita Ryu 이사, 중국 Haihong Fu 전임회장, 대만(TWSRT) Ya Yu Huang 국제이사, 마카오 Ng Cora 회장, 홍콩 Vincent Leung 회장, 베트남 Thai Van Loc 회장, 대만(TAMRT) Peng-Hao Chen 부회장, 말레이시아 Nor Aniza Azmi 교육위원장 등 세계 방사선사가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또

한 해의 회원의 학술적 연구논문, 사례보고, 최신 검사기법 등을 공유하며 새로운 지식을 나누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정환 회장은 “제25대 집행부는 방사선사의 역할과 고위 업무를 대내외에 명확히 알리기 위해 올해부터 협회 창립일(7월 31일)을 방사선사의 날로 제정하고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방사선사의 역량 강화 및 업권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은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국내 방사선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 이를 위해 전문방사선제도 및 교육평가원의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도 발표했다.

한정환 회장은 의료분야의 학문이 빠르게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는 만큼 방사선 기술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전문방사선사제도 도입과 함께 교육의 질 향상과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평가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 직업인으로서 방사선사의 자질 향상과 방사선기술학 연구, 혁신적인 협회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모든 방사선사의 화합과 권익향상을 위해 개최된 제58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는 코로나-19와 함께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임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과 달리 뜨거운 토론과 학술적인 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폐회식에서 “INNOVATION 25를 이루어 방사선사 회원 모두 협회의 자랑, 협회 또한 회원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질타를 통한 발전을 기원한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58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 행사의 성료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성공적인 개최로 이끌어 주신 학술대회 조직위원장님 및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전하며 ‘제58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을 성료했다.



인천광역시회

# NEWS

## 심장초음파 전문화 과정 수료식

대한방사선사협회 중앙연수원 인천분원은 인천시 회관에서 심장초음파 전문화 과정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7월 1일 개강을 시작으로 7월 29일까지 약 1달간 진행되었으며 총 21명이 수료하였다. 이날 수료식에는 윤일 부회장 및 17대 임원이 참여하여 수료증을 수여하였고, 윤일 부회장은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교육을 진행해 주신 감사님들 및 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수업에 임해 온 회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하였다. 수료식 이후 간단한 다과회를 통해 교육과정과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대한방사선사협회 중앙연수원 인천분원 신규 초음파 장비(GE) 도입

대한방사선사협회 중앙연수원 인천분원의 박종창 회장과 윤일 부회장은 본회로부터 신규 초음파 장비를 도입하였다. 해당 장비는 GE사의 Versana premier™로 고화질 영상 획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scan coach 기능이 추가되어 초음파를 처음 접하는 회원들도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inear, convex 및 sector probe가 구비되어 표재, 심부장기뿐만 아니라 혈관 및 유방 초음파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박종창 회장은 새로운 장비를 통해 회원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임상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성언의 집 릴레이 봉사활동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병원별 릴레이 봉사활동으로 성언의 집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8월 26일, 5차 릴레이 봉사활동에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회원(10명)과 인천광역시회 임원(6명) 총 16명이 참석하여 바닥 청소 및 주변 환경 정리를 통해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하였다. 특별히 이날은 성언의 집

운영에 필요한 위닉스 뽀송 제습기, 청소도구(온누리상품권)를 기증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며, 아울러 박종창 회장은 앞으로도 인천광역시회는 매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를 약속하였고,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대구광역시회

# NEWS

## 2023년 상복부초음파 전문화 교육 수료식

지난 8월 6일 대구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에서 무더위 속에 8주간 상복부초음파 전문화 교육을 무사히 마친 24명의 회원을 위한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수료식에는 김청모 회장 외 9명의 임원,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권덕문 교육평가원장, 이미경 연수원장, 조명희 국회의원, 24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마지막 교육은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의 'Clinical check point'에 대한 강의로 임상에서 검사 시 질환별로 차이점과 주요 check point에 대한 내용이였다.

이날의 강의를 끝으로 8주 87시간의 교육이 끝이 났으며 성실히 교육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상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응원한다.

대구광역시회 초음파 전문화 교육은 각 회사별 최신 초음파 장비와 넓

은 실습실을 바탕으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진들로 구성된 전문 교육기관이다. 상복부초음파 전문화 교육은 끝이 났지만 앞으로 보다 좋은 내용으로 다시 좋은 시간을 만들 것을 다짐한다.



## 대한방사선사협회장배 볼링대회



지난 9월 7일 대구광역시 삼우볼링장에서는 대한방사선사협회장배 볼링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는 대구광역시회를 비롯한 경기도회, 부산광역시회, 대전광역시회 회원들이 모여 팀을 이루어 경기에 임했다. 또한 경기는 TBC 볼링대회 녹화(10월 8일 일요일 10시 50분 방영)를 겸하여 진행되었고, TV를 통해 현장의 모습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4개 팀의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의 경기는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팀이 가려졌으며 녹화하는 동안 선수로 참여해 준 각 시도회 회원들의 협조와 배려로 즐겁게 녹화를 마칠 수 있었다.



# NEWS

## 2023년 대구광역시회 2차 온라인 보수교육



대구광역시회는 지난 9월 16일 토요일, 대구보건대학교 연마관에서 2023년 제2차 온라인 보수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보수교육은 삼성서울병원 이비인 화원의 '방사선을 이용한 유방 검사', 삼일병원 이미화 화원의 '심장초음파의 유용성', 대구보건대학교 정동경 화원의 '방사선치료 신기술의 사고 예방' 그리고 군선병원 장호원 원장의 '어깨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이번 보수교육은 487명의 회원의 신청을 해 주셨고 모든 회원들의 열정과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었던 온라인 보수교육은 지난 시간 동안 몇 번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여러 임원들의 노력과 회원들의 관심 덕분에 조금씩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여 이번 2차 온라인 보수교육은 큰 오류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발전된 대구광역시회가 되기 위해 교육이 끝나고 임원들이 한자리 모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 대구·경북 14개 보건복지 의료연대 단체장 연석회의

지난 9월 20일 수요일, 대구·경북 14개 보건복지 의료연대 단체장 회의가 대구광역시 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있어 김청모 회장이 다녀왔다. 14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보건 의료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총선거획단이 출범한데 이어 두 번째로 함께한 자리이다.

이날 연석회의는 많은 보건 의료 단체장들이 함께하였는데 대한방사선

사협회 대구광역시회 김청모 회장이 참석하여 방사선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자리를 모였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뚝뚝 뭉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 NEWS

## 부산광역시회

### 2023년 제1차 보수교육 진행

부산광역시회는 지난 3월 11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1교시 MR 기본원리와 이해(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김동환), 2교시 초음파로 보는 자궁근종(한국의학연구소 김수민), 3교시 유방촬영영상 석회화 증례(세계로병원 강진영), 4교시 영상의학 영역에서 인공지능(AI)이슈(동아대학교병원 양원석)로 보수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회원 600명이 이수하였다.



### 부산시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

지난 4월 6일 부산시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올해 기념식은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며,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부산시가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공개 추천받아 선정한 보건의료인 27명과 공무원 11명 등 총 38명에게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시상했다. 특히, 이번 수상자들은 일선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로 선정되었는데, 동남권원자력병원 이상호 실장이 부산시 회원을 대표하여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 2023년 초음파 전문화 교육과정 진행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가톨릭대학교 방사선과 지방연수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전문방사선사교육센터 주관으로 2023년 초음파 전문화 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 2023년 4월 15일, 유방초음파 전문화 교육과정에서 20명이 수료하였다. 강사진은 조은주, 김귀하, 홍은영, 전현미, 박소라 선생님이였다.



## 간호법 반대 집회 동참



2023년 4월 16일 간호법 반대 서울집회에 부산광역시회 윤주호 회장과 회원 6명이 참석하였다.

2023년 5월 3일, 11일 간호법 반대 부산집회에 부산광역시회 윤주호

회장을 비롯한 회원, 학생 등 30여 명(방사선과 학생 포함)이 서면 금강제하 앞 집회(약 40분)를 시작으로 민주당 부산시당 앞까지 가두행진(약 50분)에 동참하였다.



# NEWS

##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광역시회와 베트남 호치민시 방사선사회, MOU 체결

부산광역시회(회장 윤주호)와 베트남 호치민시 방사선사회(회장 LOC VAN THAI)는 지난 6월 29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주호 부산광역시회 회장, LOC VAN THAI 베트남 호치민시 방사선사회 회장, 김선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호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방사선 안전·품질 향상, 방사선사 교육·훈련, 인력 교류, 학술 교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윤주호 부산광역시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광역시회와 베트남 호치민시 방사선사회가 협력해 방사선 안전·품질 향상과 인력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OC VAN THAI 베트남 호치민시 방사선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방사선 안전·품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인력 교류를 통해 베트남 방사선사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회는 방사선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전국 52,884명 방사선사 중 부산광역시에는 2,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베트남 호치민시 방사선사회는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방사선사 8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 제13회 부산광역시 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 개최



부산광역시회는 6월 24일 오전 9시부터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제13회 부산광역시 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마스크를 벗고 처음하는 학술대회로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과 임원, 전국 16개 시·도회 회장과 임원, 부산시청 조규율 보건위생과장, 이태식 부산시의료기사연합회장 및 각 단체 회장과 부산 지역 방사선(학)과 학과장 및 학생, 방사선사 회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온·오프라인으로 회원 807명이 이수하였다. 제13회 부산광역시 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참여! 소통! 화합! Again BRTA'라는 주제로 오전 시간 부산 지역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논문 발표를 시작으로 특강과 부산광역시회 회원 논문 발표, 방사선 관련 장비 전시 등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대한

방사선사협회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응원하는 동영상과 포스터로 함께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동영상으로 학술대회를 축하했다.

윤주호 회장은 대회사에서 "안전한 방사선으로 부산 시민과 함께하며 제13회 부산광역시 방사선사 학술대회를 통해 새로운 방사선 지식을 공유하고 전문 보건 의료인으로서 위상을 세우며 국민의 보건과 행복한 삶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 회원이 주인인 협회,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실천하는 협회, 시회관 건립으로 회원이 하나 되는 주춧돌을 세우고자 한다."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하였다.



부산광역시회

# NEWS

## 상복부초음파 전문화 교육과정 진행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가톨릭대학교 방사선과 지방연수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전문방사선사교육센터 주관으로 2023년 초음파 전문화 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

2023년 8월 26일부터 상복부초음파 전문화 교육과정을 토, 일 주말동안 이론·실습 87시간 진행했으며 10월 15일 수료했다. 수강 인원은 23명이며, 감사진은 박지연, 김현정, 김선화, 조은주, 전현미, 박선경, 김수민, 한희정 선생님이다.



## 동의과학대 방사선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학(원)생 아이디어 오디션' 수상



대한변리사회가 주최하고 대한변리사회와 한국대학발명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학(원)생 아이디어 오디션'에서 동의과학대 방사선과 2개 팀이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오디션은 부산세계박람회 행사와 관련된 시설물 설치, 편의시설, 교통, 환경 보호, 안내, 디자인 등 행사에 도움 및 적용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의과학대학교 방사선과는 하량 팀(김이진, 김울민, 민준현, 이혜인)이 행사 기간 중 입점한 음식점에서 대기 시간과 혼잡을 방지하는 '스마트 오더 해피 픽업' 아이디어 제안으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ANTI TRAFFIC JAM 팀(양승아, 김경민, 이유지, 정부근, 한윤정)이 스마트 교통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교통 체증을 예방하기 위해 '페리 버스 타' 아이디어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상장과 함께 우수상은 200만 원, 장려상은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충청북도회

# NEWS

## 마카오 국제 학술대회에 초청 받다

### MRTA & CBRTA MOU 체결

지난 9월 10일 마카오에서 전 세계 20개국의 나라의 방사선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방사선사 학술대회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에 대한방사선사협회 충청북도회(이하 충북협회) 회장인 정원희 회장과 임원진들은 마카오 방사선사협회의 초청을 받아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MRTA와 CBRTA의 MOU를 체결하며 두 단체의 업무협약 및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행사에 앞서 마카오에 도착한 충북협회 정원희 회장 및 임원진들은 행사 전일 마카오 방사선사협회 회장인 Cora 회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두 단체 간 CPD program 관련 토의 및 상호간 병원방문, 학술교류 지원에 대하여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충북도회는 두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충북도회 국제부장을 맡고 있는 김현준 방사선사는 MRI에서의 Metal Artifact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여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얻

었다.  
이를 계기로 꾸준히 이어오던 MRTA와 CBRTA의 관계와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여 앞으로의 양 단체의 발전과 양 국가의 국민 건강증진에 힘쓸 것이다.

MRTA & CBRTA International Radiological Technologist Forum



MRTA & CBRTA Cooperation Meeting





## 2023-25대 전라남도회 임원 워크숍 진행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전라남도회(25대)는 올해 ‘소통과 참여 그리고 함께하는 전라남도회 방사선사’라는 슬로건으로 힘찬 출발을 하였다. 올 한해는 온라인 보수교육에서 벗어나 4년 만에 오프라인 대면교육을 실시하였고 우려와 달리 많은 회원들의 접수로 모처럼 활기찬 교육의 장이 열려 지역 선후배들의 소통 창구가 되었다. 보수교육에 앞서 전라남도회 장학회에서 소속 회원들에게 매년 대면 보수교육 때 회원 자녀에게 수여되는 장학증서 전달 및 기념식도 4년 만에 재개되었다. 전라남도회는 지난 8월 26~27일 현 25대 임원들과 20~24대 전임회장, 지역 분회장, 자문위원 등 총 16명이 참석하여 ‘듣GO, 말하GO, 행동하GO,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제25대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문철홍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귀한 시간 내어 참가한 참가자들을 소개하며 본격적인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박윤석 부회장이 2023년 제1, 2, 3차 대면 보수교육의 평가와 회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전라남도회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헤아리며 도회의 목표인 ‘방사선사의 단합된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 보수교육 방향성에 대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두 번째 주제로 문철홍 회장이 전라남도회 2024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핵심 사업들을 공유하며 회원 중심의 소통하는 전라남도회, 한 단계 도약하는 전라남도회로 거듭나기 위해 참석자들의 조언과 자문을 듣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회원들과의 소통 방법을 다양화하여 단합된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다짐하며 적극적인 제25대 전라남도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제25대 전라남도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변화를 위한 준비, 그리고 소통을 위한 행동, 행복한 동행을 시작했다.



## 2023년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하계 연수 및 이사회

니체의 말 ‘삶에 관해’ 중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라’라는 격언이 있다. 여행은 바쁜 업무와 지친 일상을 한 번쯤 쉬게 하여 본인(本人)을 돌아볼 기회를 만들어 준다. 또한 생활의 심표인 여행은 새로운 환경과 풍경을 통해 우리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한다.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는 유난히 더웠던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여름 6월 30일부터 1박 2일간 강화도 경찰 수련원에서 하계 연수 및 이사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하계 연수는 대한 디지털의료영상학회 회원들 간의 휴시(休時)와 일단화기(一團和氣)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번 행사는 바쁜 업무 중에도 김광수 회장(서울아산병원), 석종민 부회장(서울경찰병원), 이성주 총무이사(서울대학병원), 임종천 교육이사(서

울한양대학교병원), 정홍문 법제 및 공보이사(대구보건대학교) 등 많은 이사 및 회원 분들이 참가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번 하계 연수는 학회 회원들의 화합(和合)을 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해 토론(討論)의 장을 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회원들 각각의 분임 토의(討議)를 통해 참여가 부족한 본 학회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과 디지털의료영상 학술의 발전 방법 그리고 방사선사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심층 토의(討議)를 진행하였다. 이번 2023년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하계 연수 토론(討論)을 반석(盤石)으로 본 학회가 발전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 NEWS

## 2023 제1회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인공지능학술대회 개최

변화하는 환경을 선도하는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회장 김상현)는 2023년 8월 26일 현장 참여와 함께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Hybrid 방식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제1회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인공지능학술대회를 성료하였다.

이번 인공지능 학술대회에서는 'Match behaviors with genuine desire'라는 슬로건으로 '의료인공지능분야의 개념과 이해', '의료영상에서의 인공지능 응용 및 임상 시스템 연구'를 주제로 학계와 산업계 및 의료계에서의 의료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석학과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였다.

강의는 총 6부로 진행되었다.

### 머신러닝과 퍼셉트론 개념과 이해

- 최민혁(중앙대학교), 김상현(신한대학교)

### 비전딤러닝 개념과 중요성

- 정중훈(부노 의료영상본부), 정재홍(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 빅데이터의 세계, 원리와 응용

- 신경식(이화여자대학교), 신준봉(강원대학교)

### 의료영상에서의 인공지능

- 김세원(Naver Cloud Healthcare AI), 홍성완(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 딤러닝 기반 의료영상 분류 기법 및 응용

- 홍헬렌(서울여자대학교), 이승완(건양대학교)

### 근골격계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 김광기(가천대학교), 이영진(가천대학교)

김상현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회장은 "의료인공지능 기술을 의료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사례 소개와 최신 의료인공지능 트렌드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을 선도하는 학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는 일반·투시분야의 기초이론과 영상의학 기술의 임상응용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방사선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학회로서 매년 방사선 관련 기초·응용 의학기술 및 골밀도, 3D 프린터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주제로 개최된 제1회 인공지능 학술대회를 통해 향후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의료인공지능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매년 의료인공지능 학술대회를 개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 NEWS

##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연합연수교육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회장 정희동)는 지난 2023년 6월 30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Annual Summer Conference on Endovascular Neurosurgical Therapy(ASCENT) 2023 및 2023년 8월 26일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의 Summer Intensive Course(SIC) 2023에서 뇌신경인터벤션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간호사를 위한 연합연수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연합연수교육은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제3차 보수교육 및 제4차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의료 전문인으로 혈관조영 및 인터벤션에 대한 학술·연구·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과 국민 건강보건을 위해 매년 학술교류 및 연수교육을 연합으로 실시하고 있다.

ASCENT 2023은 2023년 6월 30일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허혈성뇌졸중을 중점으로 anatomy, basic device, Imaging and medication for acute ischemic stroke, Neurointervention 등을 주제로 실시하였다.

KSIN 2023은 2023년 8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Neurointervention

을 주제로 Aneurysm treatment, Acute Stroke Treatment, Liquid Embolic Materials, Medication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는 그동안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와 연합연수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와도 연합연수교육을 개최하면서 Neurointervention 양대 의학회와 연합연수교육을 개최하는 위치가 되었다. 이는 끊임없는 소통과 교류 및 연구, 교육을 통하여 학회의 위상을 높인 데 의의가 있으며 회원들에게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학회가 될 수 있었다.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NEWS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2023년 MRI 안전관리 연수강좌 성료

MRI 안전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인 실무중심의 교육  
국내 유일의 MRI 안전관련 강좌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회장 김준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MRI실 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개최된 'MRI 안전관리연수강좌'를 9월 16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강좌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내 MRI 안전관리 전문가들을 모시고 4

시간동안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회 회원 및 관련업체 종사자뿐 아니라 방사선학과 교수 및 재학생 등 250명 가까운 인원이 참석하면서 MRI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교육시간 내내 느낄 수 있었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 MRI 관련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 및 예방전략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백현지)
- ▲ 주자기장과 검사자장의 MR 안전성 (삼성서울병원 연구진)
- ▲ 효율적인 MRI 운영을 위한 RF 안전성의 이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석훈)
- ▲ 능동형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실무 (삼성서울병원 김이슬)
- ▲ 수동형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실무 (삼성서울병원 박진석)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마지막 세션에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는데, 양선욱 부회장(서울아산병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병원별 MR 안전관리 운영 현황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실무에서 일어났었던 MRI와 관련된 안전사고사례와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신장기능이 저하되거나 쇼아 환자의 MRI 조영제 검사방법, 인체 이식형의료기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MRI 검사를 해야 할 경우 등 안전에 대한 애매모호했던 내용들을 현장 실무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므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는 평이다.



학회 측은 MRI 검사가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CT 검사나 다른 영상검사보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MRI Safety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방심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나 관련 종사자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일회성이 아닌 매년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새롭게 MRI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종사자들이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김준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매년 진보된 MR 영상화기법을 습득하고 실무에 적용해 오면서 환자의 진단에 있어서 MRI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실무에 임하지만 정작 MR 안전에 대한 지식부족과 관리소홀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전문연수강좌를 통해 MR 안전관리 지식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쌓아가게 된다면 MR 실내의 환자 및 출입자들에게 득이 되는 안전한 무기가 될 것인지, 손해 되는 흥기가 될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낼 줄 아는 MR실의 유능한 방사선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MRI 안전관리 연수강좌에 참석한 회원들은 보수교육 평점 4점이 인정되고 4시간 교육을 모두 이수한 회원에게 안전관리 연수강좌 수료증(Certificate)이 발급되어진다.





대한방사선치료학회

# NEWS

## 2023년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ARTS)개최

아름다운 채색으로 물들어 가는 가을에 제58차 대한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 및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이하 ARTS)이 10월 28일 토요일 The-K 호텔 서울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ARTS 개최는 COVID-19로 인하여 연기되어 2023년에 오프라인으로 한국에서 주최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였다.

본 행사 전 금요일에 말레이시아 전직 ARTS 의장인 Chan Lai Kuan과 6명의 Panelists(한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와 회원들과의 열띤 토론의 장이 열렸으며, 토요일에 개최된 ARTS 본 행사에 대한방사선치료학회장 백금문, 조직위원장 김영범, 조직위원장 이진국 등 임원 및 많은 조직위원의 헌신과 노력으로 국제학술대회를 무사히 마

칠 수 있었다.

대한방사선치료학회 백금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이번 ARTS는 지난 10년 동안의 방사선치료기술의 발전을 되돌아보고, AI와 빅데이터가 방사선치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명해 보고 입자방사선치료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학술발표를 통해 내일의 도전에 함께 나아가자는 인사말의 시작으로 학술대회가 아주 뜨겁게 진행되었다.

약 300여 명의 국내외 회원이 현장에 참여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 박희철 교수의 'Current Status and Future of Particle Therapy in Korea', 연세암병원 김진성 교수의 'Recent AI in Radiation Oncology',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규제단 의료방사선평가실 박상현 실장의



'Current Status and Regulatory Trends of Radiation therapy Devices in Korea', 세계방사선사협회 호주/아시아지역 부회장 Tan Chek Wee의 'Radiotherapy Development in Asia', Sheikh Shakhbout Medical City Jade bescoby의 'Radiation therapy for breast cancer in the United Arab Emirates' 등 오전에 총 5편의 특강을 통해 방사선사용에 있어서 세계의 흐름에 맞춰 방호시설의 엄격한 기준에 적용되어야 함과 미래의 방사선치료 선두는 입자방사선이 주도할 것이며, 그에 맞춰 AI와 빅데이터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방사선치료의 새로운 발견이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국내외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뜻깊은 특강의 시간이었다.

오후 시간에는 국내 회원과 국제 회원의 학술 발표가 진행되었다. 국내 연재 6편, 국제 연재 5편 총 11편으로 아주 열띤 학술 발표의 장이 열려서 그 어느 때 보다 학술대회가 뜨거웠으며, '다발성 전이암 환자의 방사선치료 시 저선량 영역 감소를 위한 VMAT 기법의 유용성 평가(연세암병원 최윤원)', 'Clinical Evaluation of Deep Learnin

and Atlas-Based Auto-Contouring for Head and Neck Radiation Therapy(Hong Kong Vincent Wan Shun Leung)' 총 2명의 국내외 회원이 논문 발표 구연상을 수상하였다.

백금문 회장은 폐회사에서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ARTS)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제10회 ARTS에서 각 회원국의 방사선치료 현황과 ARTS의 중요성 및 ARTS의 미래 역할과 확대 전략, AI 시대 치료방사선사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고, 대규모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 학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되었으며, 그동안 제10회 ARTS를 위해 애써주신 김영범 조직위원장님과 조직위원, 자문단 및 임원들의 단합된 모습에 감사드리며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신 협회 및 학회 관계 임원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끝맺음으로 폐회를 선언하였다. 아울러 각 병원 일선에 계신 치료학회 회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회원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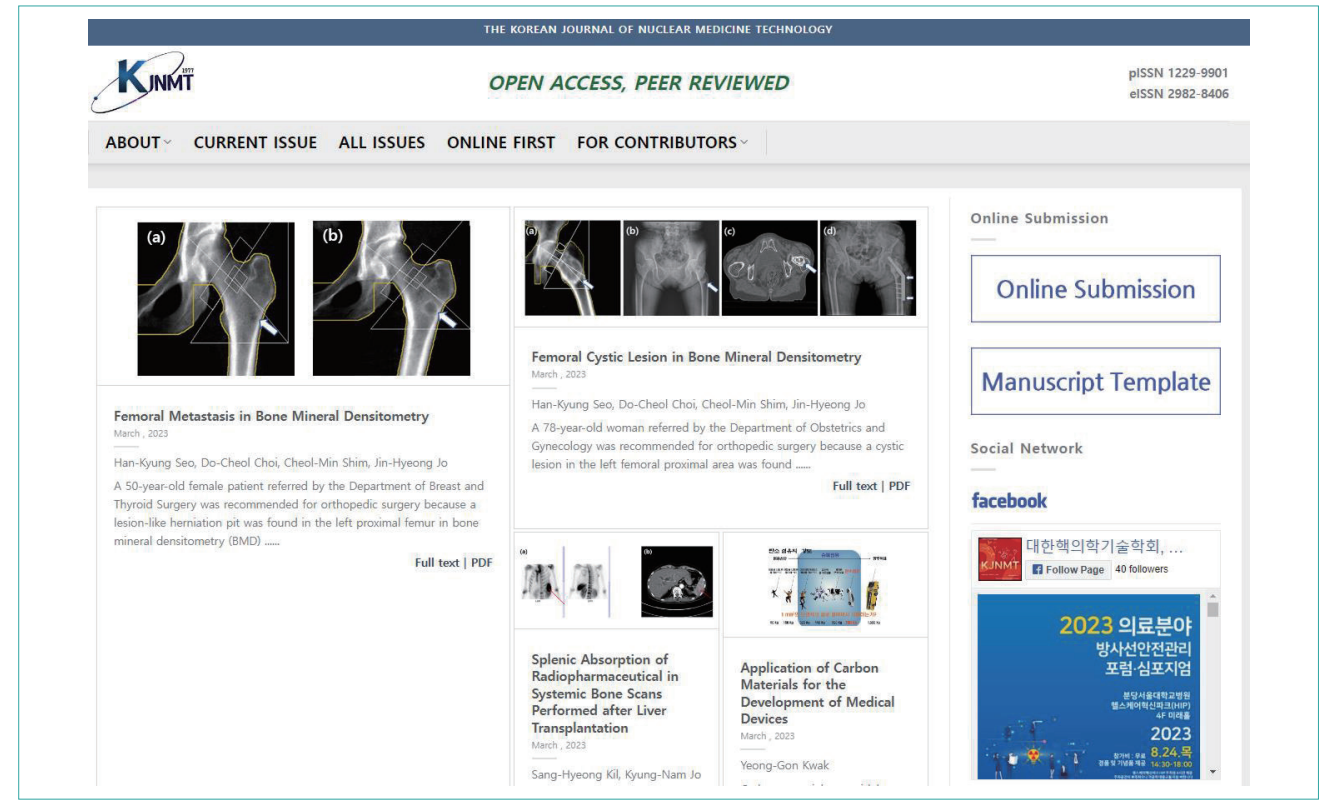


# NEWS

## 대한핵의학기술학회지 DOAJ, KCI, PubMed 등재를 위한 여정의 시작을 고하며.....

2023년 대한핵의학기술학회(<https://www.ksnmt.or.kr/>, 학회장:정우영)는 발행하는 학술지 대한핵의학기술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Technology, KJNMT)의 등재를 위한 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뎠다. 1월 초에 등재를 위한 TFT를 구성하고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ubmission.datadata.link/kjnmt/admin/login\\_new.php?url=P7lohBQW/RiW0ZOXjofH2RfuDPzjrJCSHQxSC54rt4=](http://submission.datadata.link/kjnmt/admin/login_new.php?url=P7lohBQW/RiW0ZOXjofH2RfuDPzjrJCSHQxSC54rt4=))과 저널홈페이지(<http://www.kjnmt.org/>) 제작을 시작하여 3월에 완성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eISSN2982-8406를 부여받았다.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투고자, 심사자, 편집위원, 편집

위원장 매뉴얼을 탑재하였고, 저널 홈페이지에 투고된 논문의 보다 빠른 게재를 위해 On-Line first를 도입하였다. 동시에 KJNMT를 국회도서관에 온라인 납본을 위한 비번과 아이디를 신청하여 부여받아 2023년 춘계학술지를 납본하였다. 그리고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운영 중인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에서 기관등록 가능한 비번과 아이디를 받아 학회정보를 수록하였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학회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스웨덴 룬드대학교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전 세계 대표적인 open



KJNMT(<http://www.kjnmt.org/>)의 On-Line 저널

access 저널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DOAJ)에 등재하기 위해서(9월에 신청 완료)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COPE),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joint statement by COPE, DOAJ, WAME, and OASPA; <https://doaj.org/apply/transparency/>)을 충실히 반영한 투고, 윤리, 심사, 발행규정을 영문으로 작성하였다. 그 외 DOAJ 등재조건에 맞추어 다양한 카테고리를 영문화하였고 URL를 생성시켰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에 저장되어있는 학회지를 저널홈페이지로 이관하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DOAJ에 등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치고 등재 신청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2027년 KCI 등재를 위한 기반작업도 마무리하였다. 일본과 대만 회원들의 KJNMT 투고를 위해 일본 핵의학기술학회 및 대만 핵의학기술학회의 협조를 받아 일본 Kindai 대학의 Kohei Hanaoka

박사와 국립 Yang-Ming Chiao Tung 대학의 Bang-Hung Yang를 KJNMT의 편집위원으로 위촉하였다. KJNMT의 최종목표는 2030년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산하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에서 운영 중인 PubMed에 등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JNMT에 투고된 논문의 영문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문의 글을 읽어주시는 선생님들과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며 KJNMT가 국내를 넘어 국외로 도약하기 위한 몸부림의 긴 여정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핵의학기술학회 학술편집위원회  
등재추진TFT 배상



KJNMT의 On-Line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 김창규 회장, 의기교총 대표회장으로 선출



지난 8월 9~10일 계룡스파텔 충무홀에서 개최된 대한의료기사교수총연합회(이하 의기교총) 정기총회 및 하계연수회에서 2대 대표회장으로 김창규(김천대 방사선학과,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장) 교수가 선출되었다. 임기는 올해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1년이다.

의기교총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564개 대학, 2500여 명의 교수, 10만여 명의 재학생을 대표하는 단체로 보건분야 교수의 역할 및 위상 강화로 대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학생들의 효과적인 교수법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전문 인력 배출에 필요한 국가시험의 공정성, 신뢰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또한, 의기교총은 앞으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 한국교원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적극적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전문가로서 합리적 역할과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제 일원화, 교육인증평가원 설립, 임상실습 의무화 법안 시행 및 임상실습 교육환경 개선 등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의기교총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사단체 교수협의회인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이연섭 회장), 대한방사선

(학)과교수협의회(김창규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교수협의회(최준영 회장),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이선미 회장),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정상진 회장), 전국대학작업치료교수협의회(최정실 회장),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김상현 회장),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육근돌 회장), 한국치기공(학)과교수협의회(황성식 회장)(가나다순)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창규 의기교총 신임회장은 10만여 명의 교수 및 예비 의료기사를 대표해 의기교총에서 관련 단체들과 추진 중인 대학 실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임상실습 의무화 법안 신설, 학제 일원화, 교육평가원 설립인가, 의료기사 관련 법률 개정 등 권익 보호와 위상 강화를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창규 신임회장은 “의기교총은 의료기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교수와 예비 의료기사 등의 권익과 제도 개선을 위해 9개 단체의 중지를 모아 활동하는 조직이다. 임기 동안 대표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건강한 정책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42

### Sketch

2023년 제24차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AACRT) 참관 후기

48

### News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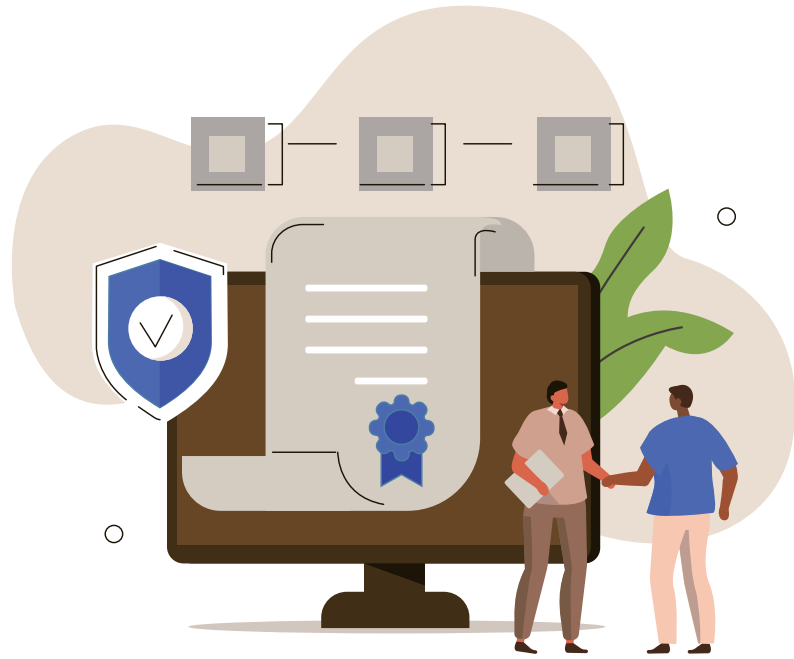
CT, MRI 공동활용병상 폐지 우리에게 다가올 의료환경의 변화는?

52

### Insight

의료 AI 시대에 방사선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 2023년 제24차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AACRT) 참관 후기

글 김상진(서울대학교병원)

### 학회 참석

개인적으로는 해외 국제학술대회를 참가한 경험이 많아서 긴장되거나 떨리는 심정은 없었으나, 새로운 해외국가에서 진행되는 해외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항상 설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23년 8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24회 AACRT(24th Asia-Australasia Conference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제24차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겸 제9회 SEARC(9th Southeast Asian Nations of Radiographer Conference, 제9회 동남아시아지역 국제 방사선사학술대회) 학회에 참석

하기 위해 2023년 8월 9일 인천공항에서 말레이시아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이 당시 한국의 8월도 가장 무더운 날씨였지만 말레이시아 현지도 역시 무더운 날씨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 학회 참석은 개인적인 발표를 위해 참석하는 것이 아닌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원으로서 협회 회장님과 동행하여 학회에 참석하는 공식적인 일정이었으며, 주요 업무 일정은 회의 참석, 주요 해외국가 회장단 미팅과 마지막으로 국내의 회원들의 논문발표 학회장에 참석하는 일정으로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4일간 방문하였다.

AACRT(Asia-Australasia Conference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학회는 매년 2년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국가들간에 개최국을 투표방식에 의해서 선발하고 개최하는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이다. 이번 학회는 말레이시아의 쿠칭(Kuching)이라는 소도시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직항 항공편이 없어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말레이시아 쿠칭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였다. 참가국은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필리핀, 말레이시아, 네팔, 태국, 싱가포르, 호주 등 16개국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 몇 년간 대부분의 국내의 학술대회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일부 학회가 진행되었는데, 몇 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학회에서의 해외회원들 분위기는 모두들 반가운 표정들로 분위기는 화기에애한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참가한 해외 회원 중에는 구면인 회원도 있어서 서로를 몇 년 만에 만나서 반가워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다.

### 학회장 분위기

학회장에 도착하자마자 QR코드를 통해서 학회에 등록하고 말레이시아 전통의 작은 액세서리가 부착된 학회등록증 목걸이를 받았는데, 기존 학회에서 받아왔었던 그냥 목걸이로 되어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기념물이 될만한 학회등록증 목걸이었다. 학회장 내의 전시회에는 약 30여 개의 현지 기업과 해외 기업들이 참가하였으며, 의료장비 기업들의 홍보 부스도 볼 수 있었고 그중 일부 기업은 한국에서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수출을 목표로 진출한 한국기업의 몇몇 부스들도 만날 수 있었다. 여러 부스를 돌아보면서 최근 영상의학기술의 발전현황을 한 번 더 새롭게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양한 영상의학영상의 구현이 가장 인상에 남았으며, 대표적으로는 흉부 일반촬영영상이 호흡동영상으로 구현되는 영상기술제시, 흉부 CT 영상에서 폐결절의 정량화하는 인공지능 영상을 보고 의료영상 기술발전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 학회 일정

이번 AACRT 학회의 전체적인 일정은 8월 10일은 세계방사선사회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지역 대표자 회의(ISRRT Asia-Australasia regional meeting),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회의(AACRT meeting)와 동남아시아지역 방사선사 회의(SEART meeting)가 총 5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11일은 Keynote 강의, Plenary 강의, Memorial 강의 등의 특강으로 일정이 진행되었고, 12일은 16개 국가 회원들의 150여 편 논문발표가 구연과 포스터로 학회가 진행되었다. 일정의 마지막인 13일은 말레이시아 전통 마을 탐방으로 일정이 구성되었다. 요일별 참석하였던 학회 일정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 ▶ 8월 10일

#### (1)세계방사선사회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지역 대표자회의 (ISRRT Asia-Australasia regional meeting)

Dr. Napapong Pongnapang(ISRRT 회장), Ms. Tan chek wee(ISRRT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부회장), Mr. Naoki Kodama(ISRRT Regional Director) 등 ISRRT의 임원진과 16개국 대표자와 각 협회 임원들이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

한정환 협회장, 나파퐁 ISRRT회장, 저자





여 각자 소개와 각국의 이슈, 관심사 및 상정할 안전들을 발표하였다. Dr. Napapong Pongnapang(ISRRT 회장)은 최근 ISRRT의 다양한 대외적인 활동의 내용을 담은 ISRRT 홈페이지의 업데이트 내용을 보고하였고 또한 새로운 ISRRT의 2022년~2026년 개정된 임원진 조직도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추가로 2024 ISRRT는 홍콩에서 개최됨을 미리 홍보하였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원진은 10월 27~28일에 개최될 제58회 대한방사선사학술대회 및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에 대해서 공지하고 많은 참여를 홍보하였다. 또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60주년이 되는 2025년에는 국제적으로 큰 규모의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그 외 해외국가 대표자들도 각국의 방사선사와 관련한 현안들을 보고하였다.

(2)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AACRT) 대표자회의(Asia-Australasia Conference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meeting)  
차기 제25차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AACRT) 개최 희망지원국들의 홍보 프레젠테이션이 약

학회장에서 저자



10분씩 3개 나라 (개최 희망지원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가 발표를 하였다. 프레젠테이션 이후 진행된 투표결과는 태국이 제25차 AACRT 2025년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 8월 11일

다양한 분야의 교육강의로 특강형식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오전부터 참석하여 경청하였다.

keynote 강의 3편은 다음과 같다.

강의(1)

Standard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n Radiological Technology: International Perspectives(연자: Dr. Napapong Pongnapang, ISRRT회장, 태국 ahidol대학 방사선학과 교수)  
Dr. Napapong Pongnapang은 ISRRT에 새로 임명된 회장으로로서 임기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공식적으로 회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ISRRT가 전 세계 방사선사를 위해서 활동할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운영계획안을 발표하였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강의하였다. 또한 저개발국가 혹은 방사선사의 교육이 취약한 국가를 대상으로 CT, MRI를 중심으로 진행할 방사선사교육에 대해서 장단기적인 교육 계획을 여러 의료기기 업체의 후원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강의하였다.

강의(2)

Extended & Expanded Roles of Radiation Therapist: A global perspectives(연자: Ms. Tan Chek Wee(International Society of Radiographers and Radiological Technologist (ISRRT) Vice President Asia/Australasia,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ingapore)  
아시아와 영국의 방사선 종양학 치료 방사선사의 역할과 확장된 역할에 대해서 전반적인 최근 경향과 향후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강의(3)

Computed Tomography's History, Applications Trends and Projections(연자: Dr. Hanafi Ali, Qaiwan International University, Iraq)  
CT기술의 원리와 전반적인 발전사에 대해서 강의하였고, 최근 경향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강의하였다.



Plenary 강의 2편은 다음과 같다.

강의(1)

Radiotherapy: Advances in motion management(연자: Kim Taeyoon, National Cancer Center, Korea)

강의(2)

Advances in nuclear medicine hybrid imaging(연자: Peter Kench, Nuclear Medicine Associate Professor, The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Memorial 강의 3편은 다음과 같다.

강의(1)

Breaking Barriers: Empowering Radiographers with AI Integration - A journey Towards Future(연자: Mohammed Mahmoud Abuzaid,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Sharjah, UAE)

강의(2)

Artificial Intelligence for Radiotherapy: Rise of the Machine(연자: Dr. Noorazrul Yahaya,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Malay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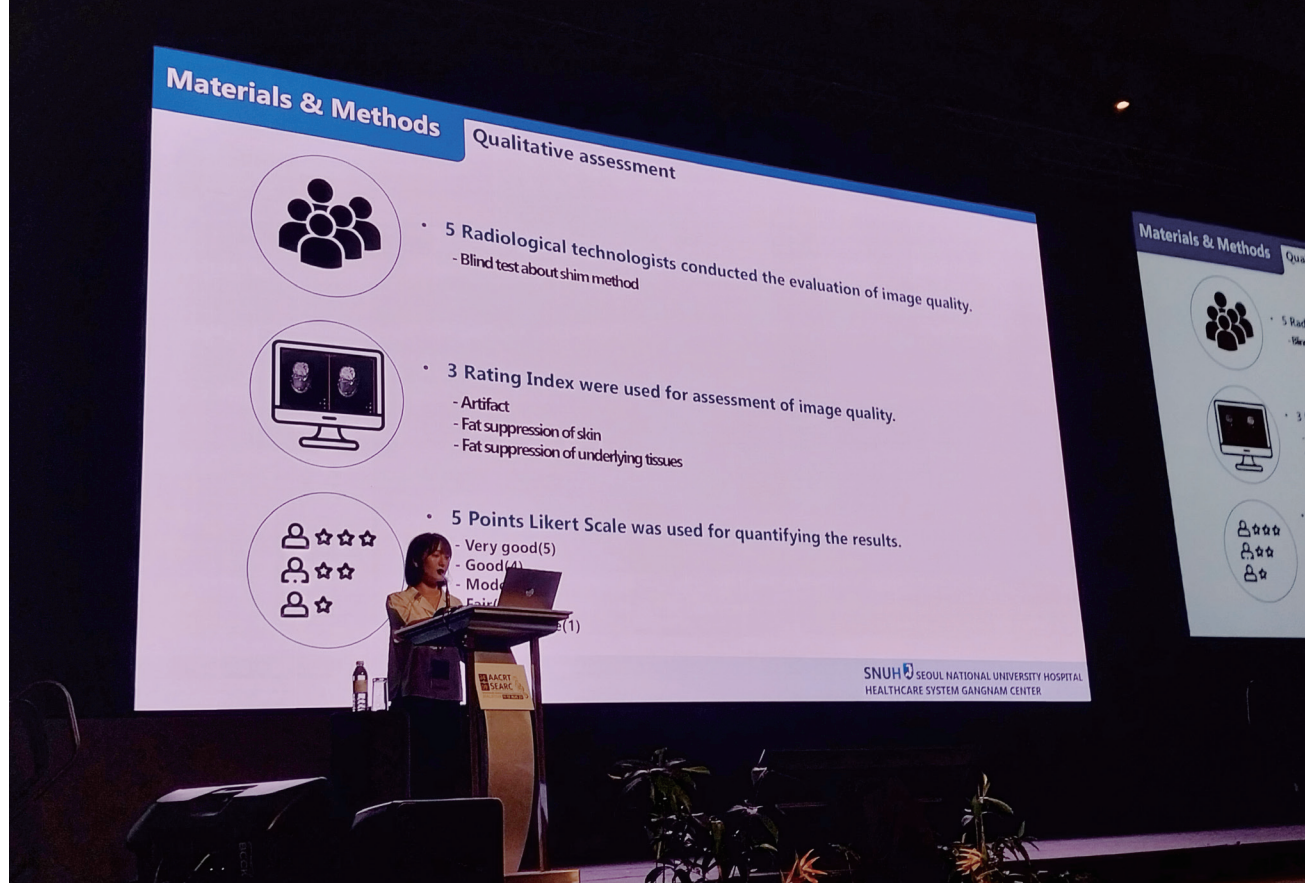
강의(3)

Ultrasound Practice, Education, Accreditation & Professional Registration in the United Kingdom(연자: Mr. Simon Peter Richards, University of Teesside, United Kingdom)

▶ 8월 12일

16개국 150여 편 해외 일반회원의 논문발표가 구연과 포스터발표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modality의 주제로 발표되었고 특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관련한 논문들이 점점 증가하기 있다는 것을 최근 경향으로 알 수 있었





이주현 회원의 구연발표 현장

다. 한편 한국발표 논문 편수는 일반촬영 1편, CT 2편, MRI 2편, 인공지능 관련 논문 1편으로 총 구연 3편, 포스터 3편이 발표되었다.

한국 회원의 구연발표 목록은 다음과 같다.

「Comparison of hypersensitivity reactions according to fasting and non-fasting before examination in contrast-enhanced CT scans」, 임천식(서울대병원)

「A comparative study of fat suppression image qualities according to shimming techniques in off-center MRI」, 이주현(서울대병원)

「Machine-independent AI for chest X-ray abnormality classification」, 신희준(Radisen 의료기기회사)

한국 회원 포스터발표는 목록은 다음과 같다.

「Evaluation of the usefulness of slower contrast agent injection and late scan to prevent extravasation in abdomen general CT」, 남윤형(서울대병원)

「Quality improvement of general anteroposterior radiographic image of vertebral body according to optimum angle of incidence」, 유장선(양산 부산대병원)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fractional anisotropy value of diffusion tensor image in brain white matter region」, 박종혁(양산 부산대병원)

본 학술대회에 구연상 중에 최고의 구연자에게 수여되는 'Best oral'은 한국인 연자인 신희준(Radisen 의료기기회사, 「Machine-independent AI for Chest X-Ray Abnormality Classification」)님이 수상하였다. 각 논문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국가의 질문자가 다양한 시각에서 질문을 함으로써 다양한 관점과 질문, 피드백을 상호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포스터 전시회장에서 적용된 키오스크 기기시스템의 적용은 한편 참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장점은 내가 원하는 토픽 내지는 키워드를 선택하면 내가 보고자 하는 포스터가 바로 검색되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었다. 내가 원하는 관심분야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검색하여 찾아볼 수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단축할 수 있는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점으로 느낀 점은 어떠한 내용의 포스터가 제출되어 전시되었는지 전체적으로 논문의 내용을 볼 수 없다는 점과 설치된 키오스크 기기의 제한 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봐야

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 마무리

학회에 참석하는 주목적은 여러 해외국가 회원들의 학술적인 연구논문, 사례보고, 최신 검사기법 등의 연구내용 등을 서로 각국의 발표자들과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며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학회장이라는 공간에서 서로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서로 각 국가 간의 관심사 등을 공유하며 그 과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얻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학회 참석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외 국제학술대회 참석은 일반 외국 회원들과의 교류의 시간이 되기도 하며, 더불어 주최 국가의 방사선사협회 측과의 인적 교류로 자연스럽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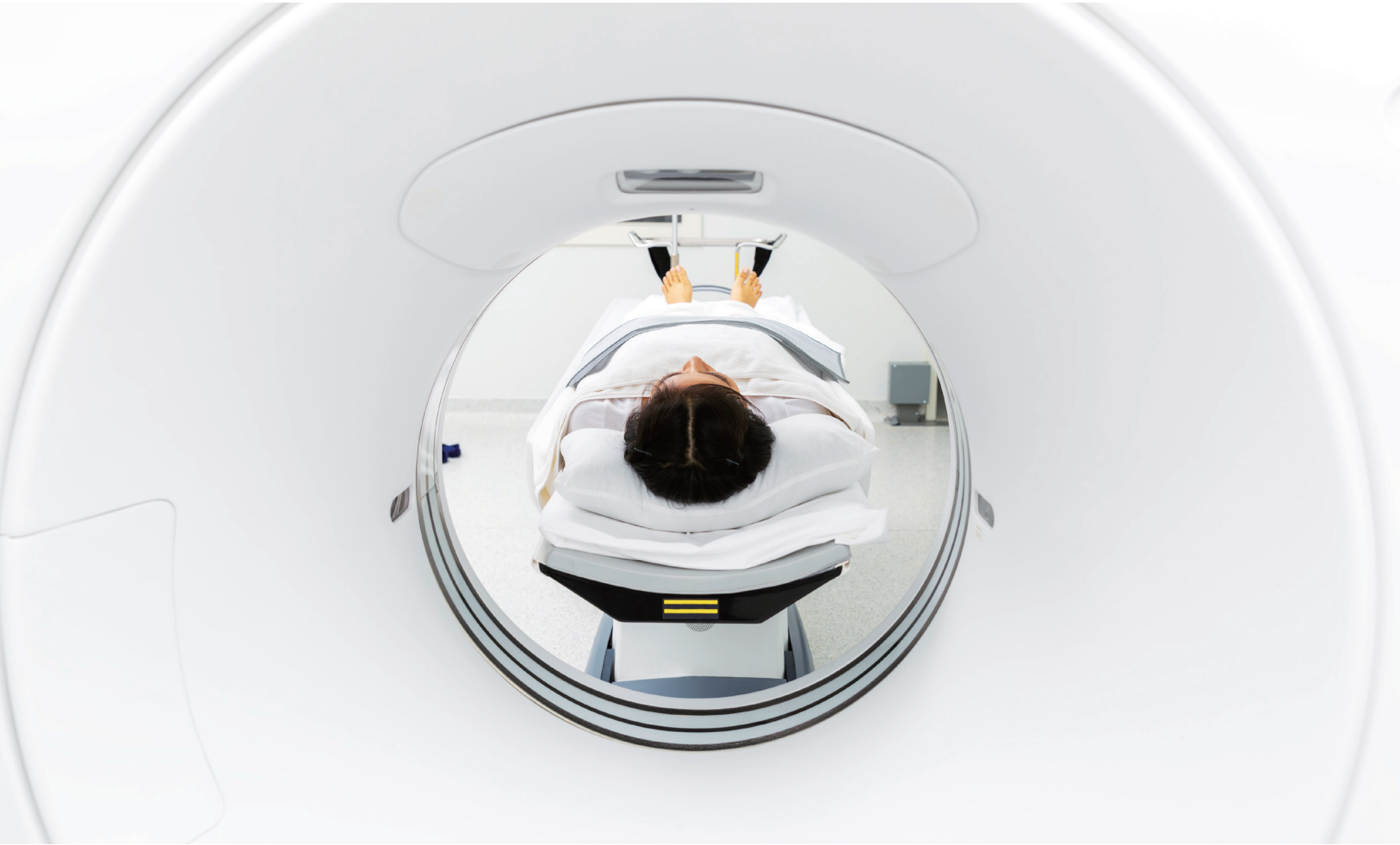
있다. 항상 해외학회에 참가하면 느끼는 사항이지만 많은 발표자들의 내용을 경청해 보면 참신한 발표 논문들이 매번 몇 편씩 발표되곤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 영상의 학기술분야의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더라도 한국 발표자들의 수준은 상위권 수준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곤 한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방사선사협회의 이번 학술대회 진행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히 준비하였다는 것을 여러 방면에서 느낄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각 나라협회 임원진들에 대한 학회 기간 내에 차량 pick up 스케줄관리, what's app을 통한 대표자들 간의 실시간 학회 일정 변경 정보공유, 여러 나라 임원들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응대 등 학회 기간 내에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에 대해서 학회 개최국으로서 많은 준비를 했다는 점을 여러 방면으로 느낄 수 있었다. K

해외 국가 임원진들과 함께







## CT, MRI 공동활용병상 폐지 우리에게 다가올 의료환경의 변화는?

글 이호일(세브란스병원)

### ‘공동활용병상’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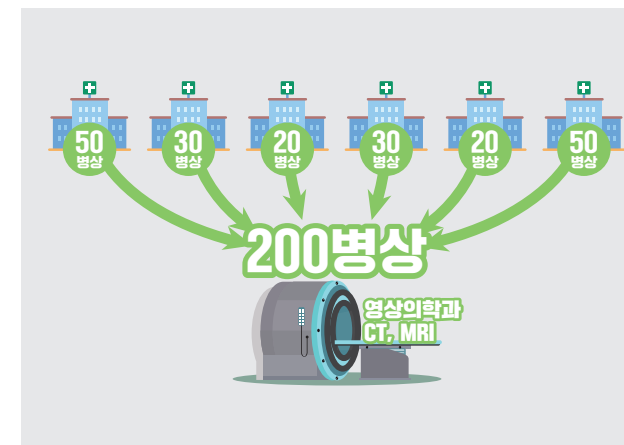
의료기관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정해진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 기준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 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CT, MRI 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활용병상은 기준 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CT·MRI 사용을 원하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설치 기준을 충족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66  
의원 및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국가와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증환자의 2·3차 의료기관 쏠림현상 가속화 등 전반적인  
의료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99

현행 공동활용병상 제도는 시 단위 지역에서는 CT·MRI 장비 허용 기준을 200병상 이상이고, 군 단위에서는 CT 장비의 경우 100병상까지 허용했지만 MRI 장비는 군 단위 지역에서도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sup>1)</sup>



### 보건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왜 폐지하려 하는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다음 [표]와 같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CT 및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보건 의료 발전협의회 회의에서 병상 및 인력기준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방안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준 병상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완화하는 대신 그동안 운용했던 공동활용병상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가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예외 규정이었던 공동활용병상 제도가 병상 매매 등 본래 취지

[표]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과 개선(안)

현 제도		개선 제도(안)
공동활용병상 제도 운영 중 (인접 의료기관 병상 공유 가능)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
공동활용병상 제도 운영 중 (인접 의료기관 병상 공유 가능)		자체 보유 병상만 인정
CT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	100병상(군 지역 50병상)
MRI	200병상	150병상

와 다르게 운용되면서 합리적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sup>2)</sup>

### 공동활용병상 폐지에 대한 각 단체별 입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0병상 이상 병원만 CT, MRI 장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제적인 기회를 박탈하고 전문적인 진료영역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적 이득의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낮아 병원급으로 쏠림현상이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원가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sup>3)</sup>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영상의학과 의사회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영상의학전문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이다. 학회는 “따라서 의원 및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국가와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증환자의 2·3차 의료기관 쏠림현상 가속화 등 전반적인 의료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



가 초래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상검사에 대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이다”며 “자체보유병상이 있어야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검사 장비인 MRI, CT를 가지고 개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다”고 지적했다.<sup>4)</sup>

영상의학과 개원가에서는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활용해 일선 의료기관의 병상을 뛰어 영상검사 센터로 운영하는 개원 모델이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 해당 제도의 폐지는 곧 영상의학과 개원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영상의학과와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sup>5)</sup>

대한신경과외사회는 특히 신경과는 치매 등 뇌 질환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정부 추진안이 “치명적인 개악”이라고 했다. 늘어나는 뇌 질환 수요 추세에 반하므로 진단과 치료 지연이라는 부작용만 생긴다고도 했다. 정책부회장은 “지금도 대형 병원은 CT·MRI 검사가 밀린다. 여기에 개원가 환자까지 모두 병원에서 검사받게 만들면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책부회장은 “의원이나 소형 병원에서 아급성 사례를 찾아내는 경우가 상당하다. 오로지 대형병원만 검사가 가능해지면 지금 만큼 스크리닝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지 모르겠다”라며 “이런 식으로 진단이 지연되면 치료 효과는 떨어지고 후유증 부담은 늘어난다”라고 우려했다.<sup>6)</sup>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가 과연 CT, MRI로 인해 의료비 상승과 피폭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에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장성 강화라는 포퓰리즘은 무분별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졌으며, CT, MRI, 초음파 촬영이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됐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 이들 장비에 대한 도입이 시장경제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증가했던 것이다. 특수의료장비를 새로 설치하는 길은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졸속 개정은 1·2차(전문병원) 병원의 도태로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해지고 의료 시스템 붕괴로 환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정형외과를 비롯한 여러 전문의들의 전문성에도 심각하게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전공의들의 진료과 선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에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는 악영향을 줄 것이다.<sup>7)</sup>

### 보건복지부의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해 투자한 부분을 고려해 균형적으로 고시 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실무 검토 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세부 부분은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공동활용병상 폐지 및 병상 기준 완화 기조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CT 및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인정기준 개선 고시 개정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개원가 및 중소병원들은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A 개원가는 “CT 및 MRI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지금 도입해도 될지 계획이 서지 않는다”라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런 개원가의 우려에 대해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동네 의원마다 CT 및 MRI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존에 공동활용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시간을 두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만들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일정 기간을 유예하는 것부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가 노후화될 때까지 쓰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sup>8)</sup>

###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의 정책 변경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단순히 의사단체뿐만 아니다. 직접적으로 CT, MRI 장비를 다루는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새로 개원할 예정이던 1, 2차 병·의원이 개정안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면 개원할 신규 병원 수가 줄어들 수 있다. 기존에 공동 활용 병상 수를 활용

하여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병·의원도 기존 장비의 운영과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방사선사의 일자리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마찬가지로 병상 수를 늘리지 않으면 신규 장비 도입이 어려워지고 하루 시행할 수 있는 검사 수용량의 한계치가 정해져 있어 검사 대기일수 증가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병·의원과 대학병원 모두 공동활용병상 제도의 폐지는 그 모든 피해가 환자의 의료혜택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CT, MRI와 같이 비용 부담이 큰 특수의료장비를 현행 제도로 인하여 무분별한 보급을 허용할 수는 없고, 나아가 국민들의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오·남용은 전체의 의료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제도 폐지 보다는 제도 폐지로 인해 야기될 문제들에 대해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의료환경에 대해 우리 개개인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이다. **K**



#### <참고 기사 원문 출처>

- 1) '병상당 500만 원 뒀든...공동활용병상 폐지되나', 2021.12.07.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 2) '늦어지는 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 연말 입법 예고?', 2023.09.27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 3) '병원 위주 '특수의료장비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2022.01.11. [이로운 의학 홍보이사]
- 4) '영상의학회, 공동활용병상 기준 폐지 법률 개정 반대', 2021.12.16.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 5) '병상 당 500만원 뒀든...공동활용병상 폐지되나', 2021.12.07.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 6) '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 일방 추진 중단 촉구', 2023.09.18. [의학신문·일간보사 이재원 기자]
- 7) '정부는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며, 의료전달체계 혼란을 가속화시키는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2023.07.21.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보도자료], '정형외과의사회 "특수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계획 백지화" 요구', 2023.07.21. [의학신문 고신정 기자]
- 8) '늦어지는 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 연말 입법예고?', 2023.09.27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 의료 AI 시대에 방사선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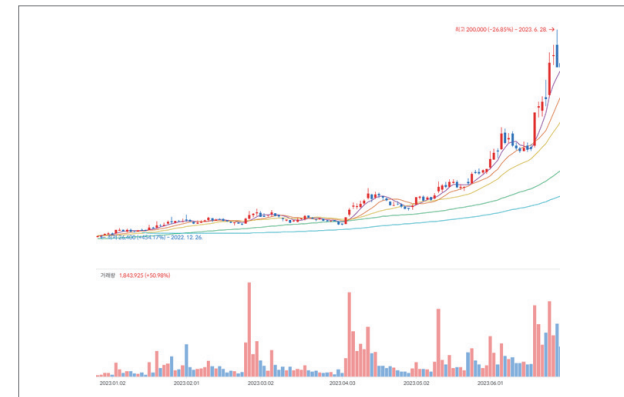
글 심지나(세브란스병원)



의료 AI와 영상의학과와의 미래 - 방사선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2018년 21억 달러 수준이었던 글로벌 의료 AI 시장 규모가 2025년 362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 보고되며 의료 AI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의료 AI 기업은 해외 및 국내중시에서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의료 AI 회사인 '루닛'은 올해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후지필름과 개발한 'CXR-AID'가 일본 건강보험 급여 가산 대상으로 공식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CXR-AID는 루닛의 폐 질환 진단 보조 AI 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 CXR'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기반 엑스레이 분석 시스템이다. 일본 건강보험급여 제도는 CT나

MRI 촬영 등에 대한 수가 항목을 통해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춘 병원에서 AI 영상진단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가산 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CXR-AID도 가산 수가 대상이 됐다고 루닛은 설명했다. 루닛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수가를 인정받아 많은 환자들이 더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길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국내 의료 AI 회사인 '제이엘케이'는 뇌졸중 분석 솔루션을 도입한 국내 병원이 BIG5 병원을 포함해 71곳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르헨티나 식품의약품의과학기술청으로부터 자사 제품 5개 솔루션에 대한 의료기기 인허가를



루닛의 올해 주가를 나타낸 그래프



제이엘케이의 올해 주가를 나타낸 그래프

획득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와 앞으로의 가능성은 주가에도 뚜렷하게 보였는데, 루닛의 주가는 올해 들어 29,800원에서 200,00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제이엘케이는 3,150원에서 19,000원까지 상승하는 등 엄청난 강세를 보였다.

다양한 의료 AI 영상 솔루션 회사들의 상품 개발 및 해외 진출로 인한 수익 창출은 미래 영상의학과와의 모습에 격변을 예상하게 한다. 영상의학과와의 미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료 AI가 영상의학과와의 전문의의 업무부담을 덜고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는 견해와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인공지능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견해다. 이러한 현 상황을 단순히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과 관계가 없다고 해서 미뤄둘 수만은 없다. 각각의 견해에 따르면 방사선사의 역할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만약 전자의 견해대로 흘러간다면 영상 검사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처럼 많은 영상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방사선사의 일자리 또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견해대로 흘러간다면 AI에 밀려난 영상의학과 의사들과 방사선사 사이의 업무 영역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 AI의 발전은 단순히 방사선사의 업무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넘어가기에는 꽤나 많은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의료 AI가 영상의학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2020년 대한영상의학회지에 출판된 논문을 토대로 미래에 영상의학과를 짊어지고 갈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개하려 한다. 이 논문이 발간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를 토대로 방사선사의 미래를 전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딥러닝 기술 중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술은 의학 영상에 적용되어 유의미한 결과들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연구 결과일 뿐, 실제로 현재 개발되어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또는 논문으로 출판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임상적 검증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임상에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때 조만간 의료 AI가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국외 연구들을 보면, 프랑스 및 독일 의과대학생 및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영상의학과 의사의 역할을 바꾸거나 축소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인공지능이 영상의학과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 응답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이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향후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 영상의학과 수련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총 12개의 수련병원에서 113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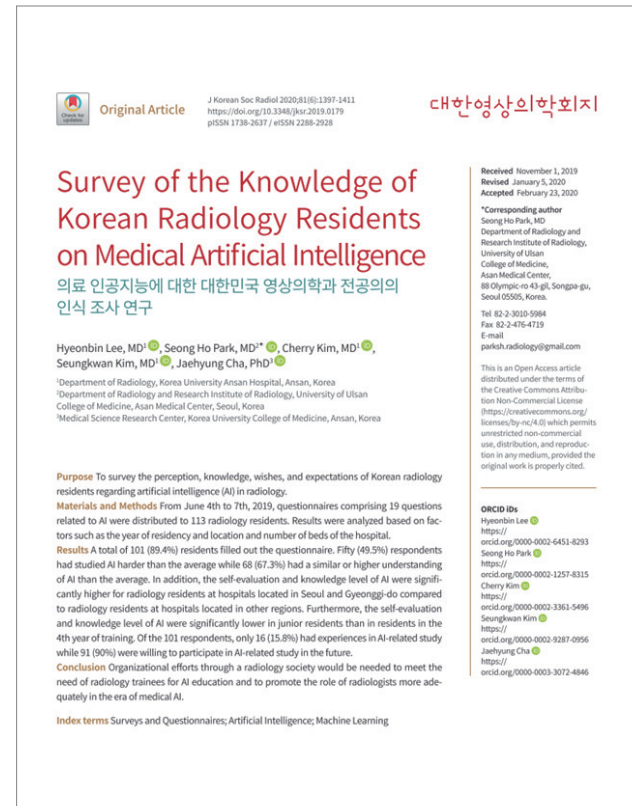
능에 대한 지식적 측면, 인공지능 관련 연구 경험과 관련 질문, 마지막으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전망, 및 전공의 선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되었다.

설문 내용 중 본 기사에서는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이 생각하는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에 대한 결과만 다루 볼 것이다. 설문 결과, 인공지능이 영상의학과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은 49%, 부정적인 의견은 12%를 차지했다. 반면 외부에서 생각하는 영상의학과 미래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은 14%, 부정적인 의견은 64%를 차지했다. 이는 영상의학과 내부와 외부의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영상의학과를 선택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답변의 비율은 53%이었고, 전공 선택 이후에 접하였을 경우 수련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답변의 비율은 46%로 나타났다. 또한 인공지능이 실제 신입 전공의 선발에 끼친 영향을 묻는 설문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2%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은 83%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설문 결과를 통해,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이 향후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연구와 인공지능에 의해 일자리를 포함한 여러 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에 있는 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적 측면에서의 교육이 매우 필요함을 말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영상의학과 내외부의 인식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여러 의료 분야에 올바른 정보의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해외에서 조사한 연구들과 이 논문을 비교했을 때, 인공지능의 발전이 영상의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필요한 의사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26.3% 가량 있었으며, 79.7%가 영상의학과 의사가 담당하는 일이 10~20년 이내 미래에 크게 변화할 것이라 응답하였다.

이처럼 영상의학과 의사 및 의대생들도 인공지능이 앞으로 영상의학과 모습의 바뀔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방사선사의 역할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사선사 역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앞으로 영상의학과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해보고 방사선사의 미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sup>1)</sup>



2020년 대한영상의학회지에 영상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내용으로 발간된 논문

#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 56 **Essay**  
바다의 리듬: 삶의 파도와 함께하는 지혜
- 58 **Together**  
방사선학과 학생의 방사선사 임상 실습 후기
- 60 **Webtoon**  
숨 참으세요



# 바다의 리듬: 삶의 파도와 함께하는 지혜

글 양현준(前 을지대학교 교수)

바다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그 모습이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양학과 천문학의 복잡한 현상으로, 자연의 이치에 따른 결과입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은 해양과 천체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어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비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은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작용할 때 일어납니다. 달과 지구, 태양과 지구, 지구의 자전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것은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삶에서도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새로운 시작이나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밀물과 썰물이 바다의 영원한 현상이라면, 우리의 삶에서도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 꼬이면 쉽게 풀기 어려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통해 삶의 진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찾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에서는 주고받음, 얻고 잃음이 반복합니다. 풍요로운 시기와 궁핍한 시기가 번갈아 오며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파도와 같은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파도는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밀려오며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바다는 변화할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의 고유한 방식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파도의 주인이 아니라도 당당하게 항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처럼 인생에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거스르기보다는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에 맞서지 말고 바람을 이용해야 합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영원함을 알려줍니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너를 거리는 물결에 몸을 맡기고 계속 나아가라고 조언합니다. 바다의 시간은 엄격한 시간표나 계획표와 달리 유연합니다. 바다의 시간은 단순히 다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경험하면 마음속에 새로운 감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은 바

다의 아름다움과 함께 다가옵니다. 가슴을 부풀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바다는 이와 같은 평온한 호흡을 통해 우리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 호흡을 따라가면 마음이 점점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시야와 섬세한 감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다가 지닌 풍요로움에 감동하며, 바다와 함께 숨 쉬는 법을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다의 리듬은 삶의 파도와 함께하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바다의 변화를 수용하고 삶의 모든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평온하고 섬세한 감정을 유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야 합니다. 바다와 함께하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함의 리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

삶에서는 주고받음, 얻고 잃음이 반복합니다.  
풍요로운 시기와 궁핍한 시기가 번갈아 오며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 방사선학과 학생의 방사선사 임상 실습 후기

글 정소윤(대구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4학년)



안녕하십니까! 대구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20학번 정소윤입니다.

학교에서 전공 공부를 할 때 이론적인 지식을 배웠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또한 병원에 취업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이용해 아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방사선학과에 진학했지만 '병원 생활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상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

을까?'라는 고민과 궁금증을 안고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막상 실습을 진행해 보니 임상 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습을 시작할 땐 환자분들과 직접 접촉하고, 방사선사 선생님들께서 방사선 치료나 여러 가지 시술을 하시는 모습에서 제가 책에서 읽고 공부한 것과 실제 임상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계속 진행하며 임상 실습은 많은 것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료분야는 빠르게 진화하고 변화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최신 의료기술과 방사선 진단, 치료 분야의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에 힘써 환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임상 실습으로 여러 선생님과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며 환자와 소통하는 방법과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고 올바르게 조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하던 중 선생님들께서 임상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며 병원 내에서 의료진 간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과 질환을 직접 접하면서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부분들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을 보니 공부하며 알기 힘들었던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되고, 실제 의료영상이 환자의 증상 진단에 얼마나 중요하고 진료에 도움이 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종양학과 실습 중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직접 만든 수세미나 자두 등을 병원 의료진 선생님들에게 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곤 하셨습니다. 이때 한 환자분께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저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경험은 제가 선택한 전공이 환자들의 건강을 돕고 방사선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궁금증을 안고 시작했던 임상 실습이 이젠 저에게 좋은 경험과 배움의 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방사선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고자 합니다.

저는 곧 방사선사가 되어 의료 방사선 분야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료분야는 빠르게

진화하고 변화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최신 의료기술과 방사선 진단, 치료 분야의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에 힘써 환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저는 학교생활 동안 다양한 학회 발표에 참여하며 최신 의료기술 및 동향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학회 발표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며 방사선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였고, 비록 학생이지만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매진했습니다.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환자들이 찾는 수도권 지역의 대학병원 중 하나인 '빅 5병원'에 취업하여 환자들의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며 쉽게 보기 힘든 증상과 질환, 그리고 최신 의료기술에 대해 공부하며 환자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자기 개발과 학습에 힘쓰며 전문성을 높일 것입니다. 방사선 분야의 최신 동향과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세미나 등에 참여해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공부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검사 및 치료 방법 등을 개발하고 환자들의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방사선사가 될 것입니다. **K**



# 숨 참으세요

틀

23. 호칭

웹툰 형식으로 아래로 길게 읽어주세요.

환자분 숨을 들이마시고 후 하고 내쉬시고

숨 참으세요

악!!! 선생님 저 숨 들이마셨어요

숨 들이마시고 참았어요..

네 다시 촬영합니다 환자분

저... 폐 촬영만 만렙이신 환자분 같으니

그런데 왜 이번엔 숨을 들이마시는게 아닌 숨을 내쉬고 참아야 하는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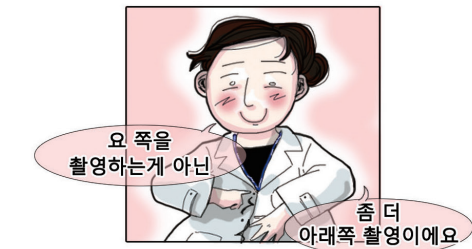


\* 실제 방사선사가 되기 위한 국가고시(국가자격시험)의 시험 문제로도 나오기도 할 정도로 헛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숨을 내쉬고 참는 검사는 배 (복부 검사) 그리고 허리쪽 척추 검사 등이예요



폐 촬영은 폐를 가장 크게 부풀린 상태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 숨을 들이마시고 참지만

정선 부위와 복부 촬영시 보통 보이는 폐의 아래 부분입니다

복부 촬영은 폐를 가장 작게 만든 상태에서 그 외의 부분을 촬영해야 하기에 숨을 내쉬고 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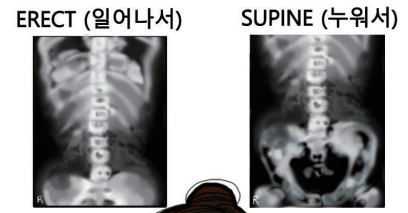


이 촬영의 사진의 매력이자 백미는



\* 서서 촬영하는 복부 촬영은 폐의 하단부터 본격적인 복부의 시작으로 봅니다

폐의 하단이 안 보여도 많이 나와도 안됩니다



배에는 가스가 있는데 이 가스가 서서 촬영할 시엔 가벼워서 좀 윗 배쪽에 가스가, 누울 경우에는 배 중심과 아래쪽으로 퍼집니다.

그렇기에 서서 한번 누워서 한번 이렇게 2번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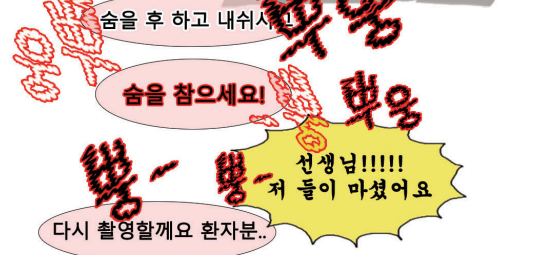
\* 통증으로 눕지 못하는 환자는 서서 촬영만, 서지 못하는 환자는 누워서만 촬영하기도 합니다



변비가 심하신 분들의 장 상태도 잘 나오는 유용한 촬영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만의 가장 큰 특징은



그속한 향기와, 재촬영을 자주 마주한다는 겁니다.

'숨 참으세요' 는 네이버 도전만화화 애니원툰에서 연재되었던 웹툰입니다.  
 네이버 http://comic.naver.com/challenge/list.nhn?titleId=690698  
 애니원툰 http://anyonetoon.com/AocWebtoon.aoc?webtoon\_num=57&



보건복지부 안내

# 방사선사 면허신고 안내



방사선사는 국가면허를 소지한 보건의료인으로 법정보수교육 이수 의무 사항입니다. 의료기사법 제20조에 따라 방사선사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1조에 따라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기사법 제22조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인력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Q 내 면허가 현재 유효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면허신고센터에 로그인하신 후 최근 현황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면허신고 현황, 보수교육 이수 및 유예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탭 '면허정지(취소)이력'을 누르시면 현재 면허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면허신고를 하려면 몇 년도 보수교육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A 직전 연도까지 보수교육 이수 완료 시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예) 2023년 면허신고 대상자: 방사선사 업무 종사자(연도별 6개월 이상)는 2022년까지 보수교육 이수 완료 후, 미 종사자는 2022년까지 면제/유예/비대상 판정 후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 Q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래의 경우를 확인해 주세요.

1. 신규면허를 취득한 해에 보수교육 면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2014년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의 경우 자동으로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으니 면허를 취득한 해의 보수교육 면제 신청이 필수입니다.)
2. 2022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완료 및 면제/유예/비대상 판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3. 이전 면허신고 진행 연도를 확인하여 주세요.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가 2020년에 면허신고 진행 시, 다음 면허신고는 2023년(2020+3)입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면허취득 시에도 신고 시기에 따라 면허신고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현재 방사선사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도 면허신고는 해야 하나요?

A 방사선사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사(방사선사) 면허를 소지한 모든 분은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주셔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방사선사로 활동 가능합니다.

## Q 필수교육 이수자가 꼭 필요한가요?

A 2020년부터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의 교과목을 면허신고 주기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동일 과목 이수 시 1개의 교육 이수로 처리됨)  
※ 필수과목 이수 현황은 협회 홈페이지 · 교육센터 · My Home · My page · 필수과목 이수현황에서 연도별 확인 가능합니다.  
※ 협회비 원납 회원은 사이버보수교육에서 필수교육을 무료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 Q 방사선사 미활동으로 보수교육 유예판정을 받았습니다. 협회비는 어떻게 하나요?

A 보수교육 유예신청 후 협회 홈페이지의 '회비할인 신청 게시판'에 글쓰기 등록하시면 면허신고센터에 첨부된 증빙자료 확인하여 회비 면제 가능한 연도는 면제 처리됩니다.

- 참고) 회비 면제 사유
1.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
  2. 본인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 중인 자
  3. 6개월 이상 미취업자
  4.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
  5. 정년퇴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

## Q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수교육 이수	● 매년 8시간 이상 이수
교육이수 (업무 복귀 시)	● 유예된 연도의 다음 연도 교육시간 - 1년 유예: 12시간 이상 - 2년 유예: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유예: 20시간 이상
보수교육 면제 (제2항)	●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증빙서류: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군 복무 중인 사람(직업 군인,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 등 ●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 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증빙서류: 면허증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2018년부터) 증빙서류: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면허에 대한 전공심화과정 중인 사람(2021년부터) 증빙서류: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보수교육 유예 (제3항)	●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휴직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증빙서류: 입퇴원확인서 등

※ 면허 미신고자는 향후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효력정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하신 후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 면허신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이후 면허 취득자는 면허를 취득한 연도에 반드시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 교육대상 - [의료법] 제37조제3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구분 - [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① 의료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선임교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음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2. 보수교육: 안전관리책임자가 제1호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후 해임되기 전까지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 일부 개정·공포 (2023.10.30.)

#### 주요개정

####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은 선임 교육 후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선임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부터 3년 적용

# 퀴즈 이벤트

방사협보 제396호를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 이벤트 QR코드로 접속하여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11월 27일 ~ 12월 31일



1등 골드바 반돈 (2명)

2등 신세계 10,000원 상품권 (20명)

3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0명)

※ 퀴즈 이벤트는 방사선사만 참여 가능합니다.

※ 당첨 상품은 개별 발송하며, 1월 17일(수)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당첨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iz 1** 방사선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의 면허 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하여 ( )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KRTA News 참조)

**Quiz 2** ( )은 기준 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CT·MRI 사용을 원하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설치 기준을 충족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News Review 참조)

**Quiz 3** 의료법 제37조제3항(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 )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 )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공지사항 참조)

### 방사협보 제395호 퀴즈 이벤트 1등 당첨 후기

저에게도 이런 행운이... 그동안 참여했던 이벤트에서 당첨과는 관계없이 살아왔는데 1등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정보들을 알게끔 해 주는 좋은 취지의 이벤트에서 당첨되어 너무나 기쁘네요. 방사선사의 날인 매년 7월 31일 하루는 특별히 더 자부심을 갖는 날이 될 것 같아요. 또한 명칭으로 방사선사에 대한 시선도 개선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방사선사들을 위해 노력하시고 힘쓰는 협회의 활동을 좀 더 관심 갖고 응원하도록 할게요. \_최\*범 회원



회원과 소통하며 방사선사의 권익을 위해 그리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25대 집행부를 응원합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방사협보를 통해 협회와 회원분들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캠핑이나 영화보기 이벤트 등을 통해 회원과 소통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협회를 응원하며, 취미생활로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협회 주관으로 대회가 열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미로 응모한 이벤트에 황금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_김\*국 회원



<방사협보>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의견을 보내주시면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소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 제58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10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

The-K 호텔 서울 | 매한 윤봉길 기념관 대강당  
2023년 10월 27일(금) ~ 28일(토)

주최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주관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 방사선치료학회

## 도전에서 도약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방사선사

